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황 인 애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영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어린이집 부모참여 경험탐색

2019

성신여자대학교 생애복지대학원

보육학과 보육학전공

오 영 희

영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어린이집 부모참여 경험탐색

황 인 애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생애복지대학원

보육학과 보육학전공

오 영 희

인 준 서

오영희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9년 5월

심사위원장_____ (인)

심 사 위 원_____ (인)

심 사 위 원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생애복지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에서는 영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어린이집 부모참여 동기를 알아보고, 아버지들의 부모참여를 통한 변화와 부모참여에 대한 요구를 알아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위해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영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어린이집 부모참여 동기는 어떠한가?
2. 영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어린이집 부모참여를 통한 변화는 어떠한가?
3. 영아기 아버지의 어린이집 부모참여에 대한 요구는 어떠한가?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에 소재한 어린이집에 영아기 자녀를 보내고 있으며 어린이집 부모참여를 3회 이상 경험한 영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 1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기간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진행되었고 심층면담은 연구 참여자별로 1회 60분씩 2회 실시하였으며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할 때에는 전화와 전자 우편을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자가 전사하여 반복적으로 읽으며 범주화하여 각 주제의 핵심내용을 개념화하는 과정을 거쳐 분석하였다.

연구문제에 따라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의 어린이집 부모참여 동기를 살펴 본

결과 아버지들은 자녀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은 소망이 어린이집 부모 참여를 하게 된 동기로 나타났다. 아버지들은 자녀에게 친구처럼 다정하고 편안한 부모가 되고 싶어 했으며 훗날 자녀에게 좋은 아버지로 기억되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양육 지식이 부족한 아버지들은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으며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어린이집 부모참여에 참여 한다고 하였다. 한편 자녀교육에 대한 이견으로 발생하는 부부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아버지들은 배우자가 신청한 어린이집 부모참여 권유를 수용하여 배우자와의 자녀교육관 차이로 발생하는 부부갈등을 해소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영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은 어린이집 부모참여를 통한 변화를 경험하면서 아버지 역할의 재정립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아버지들은 어린이집의 참여를 통하여 아버지 역할이 영아기 자녀의 발달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양육 역할을 수행 하였으며 아버지의 이러한 노력과 변화는 곧 가족의 변화로 이어졌다고 하였다. 특히 영아 자녀와의 적극적인 의사소통으로 자녀에 대한 애정이 더욱 깊어졌으며 배우자의 가사와 육아에 대한 이해와 공감으로 부부갈등이 점차 줄어들어 배우자와의 관계도 개선되는 등 친밀한 가족관계가 더욱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영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은 어린이집 부모참여를 통하여 자녀의 어린이집 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통해 담임교사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느끼고 신뢰가 높아지는 등 어린이집에 대한 이해가 증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영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어린이집 부모참여에 대한 요구를 살펴본 결과 아버지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반영된 프로그램과 시대 변화에 따른 형식의 변화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버지들은 자신의 직업을 이용한 재능 기부나 남성의 특성을 살린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선호하였으며 기존의 강연이나 세미나 위주의 대그룹 모임보다는 시간과 장소

의 제한을 받지 않고 부모참여를 할 수 있는 인터넷과 유아교육 콘텐츠를 접목한 참여방식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또한 아버지들은 소모임이나 모바일 메시지를 이용한 SNS 대화모임을 통하여 양육지식을 나눌 수 있는 공간도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자녀 양육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목 차

논문개요

| | |
|---------------------------|-----------|
| I . 서 론 | 1 |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
| 2. 연구문제 | 5 |
| 3. 용어의 정의 | 6 |
| 4. 연구자 | 6 |
| II . 이론적 배경 | 10 |
| 1. 영아 자녀와 아버지 역할 | 10 |
| 1) 영아기 발달 특성 | 10 |
| 2) 영아발달과 아버지 역할 | 12 |
| 2. 어린이집 부모참여 | 14 |
| 1) 부모참여 개념 및 의미 | 14 |
| 2) 어린이집 부모참여 유형 | 15 |
| 3) 아버지 참여의 의미 | 18 |
| 3. 아버지 부모참여 관련 선행연구 | 20 |
| III . 연구방법 | 23 |
| 1. 연구 참여자 | 23 |
| 2 연구 절차 | 30 |

| | |
|-------------------------------|-----------|
| 1) 예비연구 | 30 |
| 2) 심층면담 | 31 |
| 3. 자료분석 | 32 |
| IV. 결과 및 해석 | 35 |
| 1. 어린이집 부모참여 동기 | 35 |
| 1)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한 소망 | 35 |
| 2) 영아 자녀의 양육 어려움 해소 방안 | 39 |
| 3) 자녀교육관 차이로 인한 부부갈등 해소 | 42 |
| 2. 어린이집 부모참여를 통한 변화 | 44 |
| 1) 아버지 역할의 재정립 | 45 |
| 2) 친밀한 가족 관계 강화 | 47 |
| 3) 어린이집에 대한 이해 증진 | 51 |
| 3. 어린이집 부모참여에 대한 요구 | 53 |
| 1) 아버지 강점을 반영한 부모참여 | 54 |
| 2) 시대에 변화에 따른 형식의 변화 | 56 |
| V. 논의 및 결론 | 61 |
| 1. 논의 | 61 |
| 2. 결론 및 제언 | 70 |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 (연구 참여 동의서)

표 목 차

| | |
|--|----|
| 〈표1〉 연구 참여 아버지의 일반적 배경 | 23 |
| 〈표2〉 면담질문 내용 구성 | 31 |
| 〈표3〉 영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부모참여 경험 범주화 과정 | 34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영아기는 일생에서 신체적 발달이 가장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시기이며 이 시기 동안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다. 영아기 발달은 이후 정상적인 발달을 예측할 수 있는 척도가 되며, 또한 이 시기 동안 부정적 경험으로 인한 결함은 일생동안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김민정, 2005). 이처럼 영아기는 생의 기초를 이루는 시기로 인간의 성장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영아가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사람인 부모는 영아의 안정적인 발달을 돕는 양육자로서 영아의 보호와 성장에 도움을 주며, 부모의 가치관과 양육 태도는 영아의 인성을 형성하는 데 가장 강력한 요인이 된다(김근규, 2017). 부모는 영아에게 바람직한 행동의 모델이 되며,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관심을 갖고 협조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며, 영아는 부모와의 긍정적이고 온정적인 관계에서 안정적으로 애착을 형성하게 된다(정미라 외, 2006). 안정애착은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시키고, 자아개념과 사회성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한선아, 2018). 미국의 Head start 이후 아버지의 적극적인 양육태도가 자녀의 정서와 대인관계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가 입증되면서(신성숙, 2017), 아버지의 언행이나 가치관등이 영아의 성장과 삶에 큰 영향을 끼치며 영아의 지능과 인지능력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가정 내 아버지의 존재와 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곽금주, 2012) 영아기 발달에 있어 아버지의 역할은 매우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부모들은 자녀양육에 있어 부모역할과 양육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바람직한 부모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첫 자녀가 태어나면서 부모로서의 삶을 경험하게 되는 상당수의 부모들은 양육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경험하며,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게 된다(노선혜, 2017). 또한 맞벌이 가정 증가로 젊은 부모들은 육아와 일의 이중적 부담을 갖게 되고 이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양안나, 2014). 더욱이 현대사회의 특징인 여성의 취업률의 증가로 인한 맞벌이 가정의 증가(김미경, 외 2016)와 사회에 진출한 여성들이 육아와 출산문제로 퇴사를 결정(손순복, 2016)한다는 점에서 자녀양육으로 인한 어려움은 더 이상 개인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으로 관심 두어야 할 문제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과 교육비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사회제도 등이 마련되어 2013년부터 만0세~만5세의 영·유아 무상보육정책(보건복지부, 2012)과 어머니 중심의 양육에서 벗어나 아버지들의 양육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으로 배우자의 출산휴가, 아버지들의 육아휴직과 남성의 육아참여를 위한 모임을 활성화 시키고자 하였다(이현아, 박철, 김선미, 2017). 아버지들의 양육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배우자의 출산휴가, 아버지들의 육아휴직과 남성의 육아참여를 위한 모임활성화 등 아버지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였다(이현아, 박철, 김선미, 2017). 이와 같은 범정부차원의 노력은 보육시설의 양적증가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보육수요의 급증으로 2017년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세~만2세의 영아비율이 전체 영유아의 60%를 차지하였다(보건복지부, 2018). 한편 영아기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의지하는 부모가 점차 급증함에 따라 자녀양육의 책임을 어린이집으로 이양하고 의존하는 기관중심보육이 증가되었다(문애현, 조안나, 2018; 오옥환, 2017). 이렇듯 자녀의 양

육을 어린이집과 부모가 공동으로 수행하게 되었으며, 자녀의 건강한 발달을 위하여 어린이집과 부모와의 밀접한 가정연계가 강조되기 시작하였다(문영보, 최복기, 2009). 이처럼 가정과 어린이집의 긴밀한 가정연계는 기관과 부모간의 일관성 있는 역할 수행을 가능하게 하며, 영아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어린이집 생활을 영위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이숙화, 황성하, 남미경, 2010). 따라서 오늘날 많은 시간을 어린이집에서 보내게 되는 영아들에게 어린이집과 가정 연계는 긍정적인 영아 발달을 위해 더욱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가정연계란 부모가 보육시설의 교육활동과 운영과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부모가 보육시설과 동반자와 협력자로서 자녀교육에 대한 책임을 함께 나누어지고 자녀의 발달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모용희, 2014). 어린이집과 가정과의 연계는 영아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하도록 지원할 뿐 아니라, 교육적 관심이 높아지는 부모들에게 어린이집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영아발달에 적합한 교육방식을 제공함으로써 자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김정원, 전선옥, 2016). 또한 가정연계를 통해서 부모들은 부모역할 수행을 돕는 다양한 지원과 자녀양육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며 부모 자신의 자아 존중감을 향상시키고 어린이집과 보육교사에 대한 신뢰를 높이게 된다(문영보, 최복기, 2009). 더욱이 가정 내 부모의 교육적 역할 기능이 약화되어 가는 현 시점에서 가정연계 방식의 부모참여는 그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었으며, 특별히 가치문화 전달자인 부모의 가치체계 혼란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부모참여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김정원, 전선옥, 2016).

부모참여는 가정과 유아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간의 상호작용 및 연결을 말하며 부모교육, 부모훈련, 부모개입 등의 용어와 혼용되어 사용하여 부모들이 자녀양육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

며(김미경 외, 2016)부모-자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교육적인 활동으로(안영진, 김창숙, 2019)유아교육기관을 이해하고 참여하는 가정연계를 포함하는 교육이다(김미경 외, 2016). 한편 최근에는 영유아의 성장, 발달에 미치는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어린이집에서도 아버지와 가정연계의 중요성과 아버지 참여의 필요성이 강조 되고 있다(김근규, 2017).

아버지가 자녀의 양육에 참여하였을 경우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발달을 미치며 자녀의 인성형성에 가장 강력한 요인(안영진, 외 2019)으로 아버지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아버지가 수행하는 자녀의 신체적 돌보기와 생활지도, 자녀와 함께 하는 활동이 자녀의 창의적 리더십을 높여주는데 효과가 있으며(권미선, 2011),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높을수록 또래 관계에서의 유능성이 높아지고, 정서조절 능력에 긍정적 영향을 주며(박익새, 2012), 자녀들로 하여금 사회적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회, 정서적 갈등 상황을 잘 극복해 낼 수 있는 인지적 전략을 갖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윤영주 2014). 이와 함께 아버지 자신도 자녀를 양육하는 경험을 통하여 ‘남성으로서의 삶의 행복감’ 과 ‘가장으로서의 행복감’ 을 느끼게 된다고 하였다(조경숙, 2012). 이처럼 아버지가 자녀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살펴볼 때 어머니와 함께 공동 양육자로서의 아버지 역할에 대한 인식변화 및 바람직한 아버지 역할 수행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아버지들은 스스로를 자녀양육에서 중요한 책임자로 인식하면서도 자신들의 역할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송지은, 2017). 아버지들도 가정과 일의 양립에서 내적갈등과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지만, 어린 시절 원부모의 아버지에게서 자녀양육 기술을 습득한 경험이 부족하여 양육자로서 아버지 역할에 더욱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라 할 수 있다(권기남, 2012; 손순복, 2016). 이러한 맥락에서 영아 발달에

대한 이해와 생활지도 등 전반적인 영아기 자녀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전문적인 아버지교육 프로그램이 요구된다(강경옥, 2002). 실제적으로 아버지들은 아버지참여수업을 통해 또래의 다른 부모들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신성숙, 2017), 참여수업에서 배운 지식으로 자녀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해지고 자녀와의 갈등이 감소되었으며, 아버지 스스로도 가장으로서의 만족감과 양육 효능감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권태은, 2007; 이영환, 2008).

이에 본 연구는 어린이집 부모참여의 경험이 있는 영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아버지들이 부모참여에 참여하게 된 동기와 부모참여를 통한 변화를 알아보며, 참여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통해 부모참여에 대한 요구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영아기 아버지 요구에 부합된 부모참여 방안을 모색하여 보다 효율적인 어린이집 부모참여 활성화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영아기 아버지의 어린이집 부모참여에 대한 참여경험을 알아보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선정하였다.

첫째, 영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어린이집 부모참여 동기는 어떠한가?

둘째, 영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어린이집 부모참여를 통한 변화는 어떠한가?

셋째, 영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어린이집 부모참여 요구는 어떠한가?

3. 용어의 정의

1) 부모참여

본 연구에서의 어린이집 부모참여란 부모가 어린이집과 긴밀한 유대를 통하여 영유아를 바르게 이해하고, 부모 자신이 영유아의 학습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부모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유아교육사전(2003)에서는 영유아의 교육을 교육기관 중심에서 벗어나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자녀교육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부모들이 자녀교육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부모가 자녀의 교육에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수준에서 벗어나 부모와 교사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상호보완적으로 교육에 대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방법이라고 정의하였다.

4. 연구자

본 연구의 연구자는 초임시절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유아와 영아 담임교사를 경험하였으며, 그 이후 결혼과 출산을 하면서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였으며 현재는 만2세부터 만5세까지의 영유아가 함께 생활하는 서울형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연구자는 교사시절부터 현재 시설장으로 근무하는 20년 동안 국공립, 가정, 민간, 관리동 등, 다양한 유형의 어린이집을 경험을 하였고, 원아상담과 학부모의 고충상담들을 많이 접하면서, 부모 상담에 대한 나름의 노하우

우와 부모교육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있었다.

연구자의 경험으로 비추어볼 때, 과거 학부모 상담이나 교육의 대상은 주로 어머니가 많았으며, 아버지만을 대상으로 하는 참여수업이나 교육은 따로 진행 되지 않았었다. 혹여 아버지에 대한 참여수업을 계획했다 하더라도 참여를 희망하는 아버지가 극히 적었던 경험이 있었다. 솔직히 교육을 진행하는 실무자의 입장에서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심리적으로 더 편한 마음이 들었으며, 이는 연구자도 원장이기 전에 같은 부모이자 엄마로서의 공감대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과 등 하원 때 자주 접하는 어머니와의 친밀감형성으로 아버지보다는 어머니를 더 편안하게 대할 수 있었던 것이라 생각하였다

그러나 연구자는 최근 어린이집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였다. 과거에는 원아상담을 주로 어머니와 진행하였지만 근래에 들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가고 있다. 또한 입학상담 시 아버지들의 의견에 따라 입학 여부가 결정되면서 자녀의 어린이집 생활에 아버지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게 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어린이집 입소 대기 신청이 전산화 되면서 아버지들이 직접 모바일과 인터넷을 이용하여 대기 신청을 하는 등 입소 전부터 자녀의 어린이집 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 어린이집 등원 길에서 자녀와 함께 하는 아버지들을 만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풍경이 되었다.

아버지들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어머니 대상 부모교육이나 상담에 익숙하였던 연구자에게 아버지들의 갑작스런 방문은 여전히 당황스럽고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자녀의 영아반 담임교사에게 불만을 가진 아버지와 상담을 계기로 아버지들이 자녀발달에 대한 관심 및 올바른 육아방식에 대한 요구가 높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계기로 연구자는 아버지들과의 친밀감 형성의 중요함을 생각하게 되었다. 또한 아버지들의 특성을

고려한 상담 및 부모참여 등을 실시하여 아버지들로 하여금 어린이집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의 중요함을 깊이 느끼게 되었다.

특히 영아기 자녀를 맡기고 있는 부모들은 의사전달이 원활하지 못한 발달 특성상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보다도 더 많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영아기의 어린자녀를 맡긴다는 죄책감에 교사에게 더욱 신경 써 줄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어린이집의 시설장으로서 오랜 기간 아버지들과 소통하면서 아버지들은 자녀의 인지적 발달에도 관심이 있었지만 어린 영아기 아버지일수록 자녀가 건강하고 안전한 어린이집 생활을 통하여 원만한 사회적 또래 관계를 형성하고 어린이집에서 편안하게 생활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현재 연구자는 아버지들의 부모교육과 부모참여의 필요성을 느껴 ‘동심(童心)과 함께 하는 부심(父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5년 전부터 연구자의 어린이집에서 아버지 참여수업을 활성화 시키고자 노력해왔다. 그러나 그 동안 부모참여를 진행한 결과 대부분 유아기 아버지들의 참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영아 자녀를 둔 아버지들은 아직도 낮은 참여를 보이고 있어 그 원인을 파악하기 쉽지 않아 영아기 아버지의 부모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본 연구자는 아버지 참여수업에 대한 관심과 실제 운영 경험을 통해, 영아기 아버지들의 부모참여에 대한 생각이나 참여과정에서의 경험 등을 깊이 있게 탐색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이를 통해 아버지의 관점에서 어린이집 부모참여를 계획하고 실행한다면 자녀양육의 공동책임자인 아버지들의 부모참여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영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어린이집 부모참여 경험탐색’을 주제로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다양한 어린이집 유형별로 영아기 아버지들의 부모참여 경험을 탐색해보는 본 연구를 통해 영

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의 어린이집 부모참여가 활성화 되는 데 기초자료가 되기를 희망해본다.

Ⅱ. 이론적 배경

1. 영아 자녀와 아버지 역할

1) 영아기 발달 특성

영아기는 인간 발달의 기초를 형성하고 다지며, 성장 할 준비를 하게 되는 일생 중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영아기의 원활한 발달은 인간의 전 생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이 시기의 결함은 회복이 어려우므로 (박유미, 2008) 영아에 대한 발달적 특성을 이해하여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영아의 신체발달은 생후 24개월 동안 매우 급격한 성장과 발달의 변화를 가져온다(천은영, 2015). 이 시기에는 대근육에도 놀라운 발달을 보여 12개월에서 15개월 된 영아들은 보행을 할 수 있으며, 23개월의 영아는 달리는 것을 즐기게 된다(천은영, 안라리, 이연희, 2008). 영아들의 대근육 발달과 운동발달은 순서와 원리로 이루어지며 대근육의 통제가 정교해지고 협응이 되어가면서 소근육의 발달도 이루어지게 된다(권민균 외, 2006). 영아들은 6개월이 지나면 물건을 움켜쥐고 장난감이나 물건을 손으로 들어 올리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한다(김근규, 2017). 12개월경에는 눈과 손의 협응이 더욱 정교해지고 20개월이 넘는 영아는 끼적이기와 퍼즐 맞추기 등 소근육 활동이 더욱 정교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이영은, 2013).

영아기는 신체적 발달과 함께 언어적으로도 괄목할 만한 발달을 보인다. 영아들의 언어 발달을 살펴보면 영아들은 어머니나 아버지의 말소리를 듣는 단계부터 말하기를 준비하기 시작되며, 12개월 이전의 영아들은 울음이나 웅

알이 등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게 되는데 이 시기를 말하기 준비 단계인 전언어기(Pre-linguistic stage)라고 한다(권민균 외, 2005). 영아들은 전언어기단계 동안은 울음을 통하여 배고픔과 화남, 불쾌함, 고통, 졸림 등의 자신의 욕구를 표현한다. 특히 영아들은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욕구가 충족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울음이나 표정 또는 몸짓으로 자신의 요구를 표현하려고 한다(Laura E. Berk, 2008). 1세~2세가 되면서 영아는 한 단어시기와 두 단어시기를 거치면서 의미 있는 단어들을 말하기 시작하여 생후 1년 반에서 2년까지 습득하는 어휘는 급격하여 2세쯤이면 190개 정도의 낱말을 사용하여 말하며 이때를 언어의 폭발기(Vocabulary bust)라고 부른다(정계환, 2011).

1개월도 안된 영아가 타인과 눈 맞춤을 하고 타인의 얼굴을 바라보는 사회·정서 측면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생득적인 특징으로 이 시기의 영아는 다양한 행동 특성들을 통해 자기 개념을 발달시킨다(곽금주 외, 2005). 영아들의 유대감과 애착, 그리고 기본적 신뢰감은 주로 특정 인물과 맺어져 있으며, 걸음마기 영아들의 사회·정서 발달은 독립적 특성과 자기중심성에 깊은 연관이 있다(김근규, 2017). 특히 애착은 영아가 태어나서 양육자 사이에서 생기는 긍정적인 정서 관계이며, 이 시기에는 양육자에 대한 분명한 애착을 형성하며 다른 가족에 대해서도 애착 행동을 나타낸다. 영아는 13~18개월에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며 안정애착의 영아는 유아기의 인지 발달과 사회·정서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부모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영아는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영아들보다 융통성 있고 인내심 있게 과제에 접근한다(천은영 외, 2008). 2세의 영아는 공포, 기쁨, 슬픔, 노여움, 즐거움, 애정 질투심, 분노와 같은 다양한 감정표현과 정서표현으로 자기의 감정을 나타내며 정서와 감정을 표현 할 수 있고 자신을 통제하는 능력이 생기게 되며, 자신감과 자아 존중감이 발달하게 되면서 감정이입 능력

도 생기게 되어 친사회적 행동이 나타난다(신성숙 2017). 36개월경부터 절반 이상의 영아들은 자신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정확히 인식하는 성 정체감 성 정체감이 확립하게 된다(곽금주 외 2005).

영아의 인지적 발달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발달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어 신체발달, 감각·지각발달, 정서적 안정 등과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더욱 정교하게 이루어진다(강경미 외, 2005). 영아의 인지적 발달은 Piaget의 인지 발달 이론에 근거하여 감각운동기에 해당되며, 이 시기의 영아는 감각을 통해 학습하게 되어, 쥐기, 빨기, 때리기 등을 조직화하게 된다(정계환, 2011). 영아들은 자신의 몸을 가지고 놀고 탐색하다가 점차 이동이 가능해지는 6개월 이후부터는 주변에 호기심을 보이며 입으로 탐색하면 오감을 자극하는 놀이를 하게 된다(정계환, 2011). 12개월에서 24개월에는 지연된 모방과 사물연속성 그리고 가상놀이와 상징놀이가 출현하여 이시기의 인지적 특성으로 볼 수 있다(신성숙, 2017). 위와 같은 특성을 가진 영아의 행동과 경험은 영아의 뇌 성장에 자극을 주고 영향을 미치며 영아에게 영구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영아의 뇌 발달은 유전적 영향 뿐 아니라 환경이나 영양과도 같은 후천적인 영향에도 지배를 받는 시기이다(김유진, 2003; 천은영, 안라리, 이연희, 2008). 영아는 다양한 자극과 경험을 받아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반대의 경우인 결함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시기(이원영 외, 2008)이므로 영아기는 인간의 일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로 볼 수 있다.

2) 영아발달과 아버지 역할

부모는 영아가 태어나서 만나는 최초의 사회적 관계로 영아의 성격과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되며, 영아가 사회적 상호작용이나 문제를 해결하

는 능력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준다(정계환, 2011). 영아들은 월령에 따라 발달적 차이가 크고 그에 따른 발달적 욕구가 다르기 때문에 영아들의 욕구에 맞는 양육환경이 반드시 필요하다(이영은, 2012). 즉 자신의 유전적 특성과 부모를 포함한 주변 양육환경과의 끊임없는 관심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영아는 더욱 빠른 성장을 하게 되며 이후 발달의 기본적 바탕을 이루게 된다(박수연, 2012). 부모는 영아에게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해 주면서 영아 자녀와의 안정적인 애착이 형성되도록 하여야 하는데 만약 이 시기에 안정된 애착이 형성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과민한 불안 증세와 지나친 애정의 요구와 의기소침 등의 성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양육자는 영아의 신호에 민감하고 일관성 있게 반응하여 안정된 애착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김유진, 2003). 이처럼 부모가 영아를 어떻게 양육하고 상호작용 하느냐에 따라 인간의 성격형성과 발달에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영아 시기의 부모역할도 매우 중요 하며 부모와 자녀와의 효율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녀의 성장과정과 단계별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정계환, 2011).

부모는 영아의 안정적인 발달을 돕는 양육자로서 영아의 보호와 성장에 도움을 주며, 부모의 가치관과 양육태도는 영아의 인성을 형성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 된다(김근규, 2017). 더욱이 양육에서의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아버지의 적극적인 양육참여와 역할 수행이 영아 자녀의 발달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신성숙, 2017). 특히 아버지는 영아에게 바람직한 행동의 모델이 되며,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관심을 갖고 협조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정미라 외, 2014). 이러한 부모들의 다양한 활동으로 형성된 안정애착은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시키고, 자아개념과 사회성 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한선아, 2018). 아버지가 기저귀를 갈아주는 횟수와 영아의 애착형성은 밀접한 관계

가 있다는 연구결과는 아버지가 자녀양육에 직접 참여하고 상호작용 할 때 애착이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강경옥, 2002). 또한 자녀 양육 시 아버지- 영아 자녀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아버지는 자녀의 신호에 반응하고, 자녀도 아버지가 자기를 대하는 방법을 학습하면서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Parke, 2005). 이처럼 영아와 아버지의 상호작용은 어머니의 양육의 시간보다 양적으로 적게 참여하고 있으나 영향을 주는 질적인 측면은 차이를 보인다(신성숙, 2017). 이런 측면으로 보았을 때 어머니 한쪽의 자극보다도 아버지의 또 다른 다양한 자극을 받은 영아들이 더욱 건강한 성장, 발달을 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영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을 살펴 볼 수 있으며, 영아기 자녀의 발달을 위하여 아버지들의 실질적인 양육 참여는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2. 어린이집 부모참여

1) 부모참여 개념 및 의미

부모참여는 가정과 유아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간의 상호작용 및 연결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부모들이 자녀양육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이다(김미경 외, 2016). 최근에는 부모참여를 부모교육과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하는데 부모참여란 특정한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에 부모가 직접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며(권미경, 2012) 보육시설과 부모가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가 아닌 서로 상호 보완하여 참여하는 관계로, 부모가 적극적으로 보육시설에 참여하는 것을 격려하고 가정과 연계하여 일관성 있는 교육을 가정으로 확대시키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다(박세진, 2010).

위의 개념들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부모참여는 부모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모든 교육과 기술이나 활동을 의미하며 부모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을 통해 전반적인 수행력을 길러주어 예비 부모까지 포함한 성인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신성숙, 2017). 가정의 중심이 되는 부모는 자녀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부모는 자녀교육 및 발달에 대한 올바른 의식과 태도를 가지고 효율적인 역할 수행을 해야 하며(정계숙 외, 2007), 자녀의 발달과 성장을 위하여 부모는 교육적 활동을 통하여 자녀에 대해 책임감을 인식하고 그 책임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여 해야 할 것이다(유효순, 이원영, 2003). 이처럼 급속하게 변화되는 자녀의 미래에 대한 준비를 위하여 부모들도 교육이 필요하며, 가정과 교육기관의 일관성 있는 교육의 연계성 확립을 위하여 부모참여가 필요하다(김정원, 전선옥, 2016). 현대사회에서는 특히 다양한 가족구조가 존재하므로 각 가족의 형태에 맞는 부모역할이 요구 되고 있으므로 개별화 된 부모참여가 더욱 중요하다(정계숙 외, 2007).

이렇듯 현대의 부모들에게는 미래의 훌륭한 인적 자원 양성을 위하여 부모교육이 절실하며, 특히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는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가족구조의 특성에 맞는 부모참여 프로그램이 요구되고 있다.

2) 어린이집 부모참여 유형

현대 사회는 핵가족화와 맞벌이 가족의 증가로 영아들이 과거보다 어린이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으며, 이로 인하여 부모의 양육적, 교육적 역할이 과거에 비해 약화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김정원, 전선옥, 2016). 더욱이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는 현대 사회의 특성상 가치문화 전달자로서의 부모들의 역할은 매우 크며 부모들의 가치체계 혼란과 같은 문제가 발생되

지 않도록 어린이집 부모참여가 절실하므로 어린이집에서 다양한 환경과 상황에 놓여 있는 부모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부모참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현재 어린이집에서 실시되고 있는 부모참여유형을 부모들의 참여 성격으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소극적 참여 형태와 적극적 참여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정계숙 외, 2007). 적극적 부모 참여 유형에는 행사참여, 부모면담, 학부모수업참여가 있으며, 소극적 참여유형에는 부모교육, 부모참관, 학부모 오리엔테이션, 가정정보연계제공 등이 있다. 부모참여 유형 별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부모참여수업 중 가장 적극적인 유형의 부모면담은 교사와 부모가 자녀에 대해 의견과 정보를 나누는 가장 적극적인 의사소통의 부모참여 방식이며 개별적 면담과 집단 면담으로 구분 할 수 있다(정계숙, 외 2007). 교사는 부모와의 대화를 통하여 영유아의 가정환경을 파악할 수 있으며 부모는 기관에서의 자녀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부모면담은 영유아가 문제 행동을 보일 때 뿐 만이 아니라 대부분 학기 초에 실시하여 부모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김정원, 전선옥, 2016).

행사참여는 어린이집의 다양한 행사에 부모가 자녀와 함께 참여하는 부모참여를 의미하며, 행사참여에는 자녀와 부모가 함께 참여하면서 부모-자녀간이 친밀감이 형성 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며, 운동회나 알뜰시장 등이 있다(허평순, 2014). 부모 참관에 비해 부모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최근에는 아버지 참여, 어머니 참여, 조부모참여 등 다양한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정계숙 외, 2007). 하지만 근래는 다양한 가족구조로 인하여 한 부모 가족이나 조부모와 살고 있는 영유아들이 늘고 있는 실정으로 아버지나 어머니가 없는 영유들에게 부모의 행사참여는 의도치 않는 상처를 주게 되므로 어린이집에서는 가족상황을 파악하여 부모참여를 계획해

야 할 것이다(김정원, 전선옥, 2016).

학부모수업참여는 자녀의 수업과 활동에 부모가 함께 하는 활동으로 부모는 자녀와 교육활동에 함께 참여하거나 부모가 일일교사나 보조교사의 형태로 참여하는 모든 형태의 참여수업을 말한다(허평순, 2014).

소극적 부모참여의 부모참관은 어린이집의 계획에 따라 모든 부모가 함께 재롱잔치나 작품 전시회처럼 자녀들의 활동을 참관하는 부모참여형식으로 다수의 부모가 참여수도 있지만 특정 자녀의 문제를 관찰하기 위하여 한명 또는 소수의 부모가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김정원, 전선옥, 2016). 부모참관은 자녀를 가정이 아닌 다른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또래 집단에서 자녀의 발달 정도와 개인차를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장점이 있다(정계숙 외, 2007).

부모교육은 자녀의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지식과 양육정보를 제공하는 부모교육 형태(남지영, 2016)로서 많은 부모들에게 동시에 동일한 내용을 전달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어린이집에서는 많이 사용(김미경 외, 2016)되어 왔지만 대집단 형식의 부모교육이 개별부모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고 직장에 다니는 부모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단점으로 저조한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김지현, 2008).

학부모 오리엔테이션은 신입원아를 대상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방침과 운영방침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모참여로, 부모들이 가질 수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의문사항을 질문과 답변 과정을 통하여 부모의 이해와 협조의 폭을 넓힐 수 있다(남지현, 2016).

가정연계정보제공은 어린이집의 행사와 교육에 대한 정보를 가정통신문이나 어린이집 게시판, 소책자, 홈페이지와 인터넷 카페 등을 이용하여 전달하는 일방적이며 소극적인 부모참여(허평순, 2014)의 한 형태로서 많은 부모가 대상이 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보편적인 형태와 내용을 담고 있으

며 개별적인 친밀감이 적어 활용도가 부족한 단점이 있다(정문자, 1992).

그 밖에도 부모가 수업에 사용되는 교재교구를 지원하는 수업재료지원과 부모의 재능과 자원을 지원하는 수업자원지원 부모참여가 있다(김정원, 전선옥, 2016 ; 허평순, 2014).

종합해보면, 어린이집에서의 부모참여가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족구조 및 급격한 시대변화 등을 고려하여 앞으로의 부모참여가 시대변화에 따른 참여방식을 새롭게 도입하여, 가정의 개별적 요구에 부합된 부모참여 프로그램내용으로 부모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3) 아버지 참여의 의미

아버지 참여란 아버지들이 유아교육기관의 교육이나 자녀의 수업에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관한 정보와 유아교육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교육기관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는 등의 다양한 활동을 포함한다(김근규, 2017).

아버지들의 어린이집 부모참여는 재롱잔치나 음악회에 아버지가 참여하는 정도의 소극적 형태로 운영(김정원, 전선옥, 2016)되었으나, 아버지들이 활동적인 부모참여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것으로 인식되면서 부모교육이나 참관이 아닌 보다 적극적인 형태의 아버지 부모참여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다(김근규, 2017). 이와 같이 아버지들의 부모참여가 자녀와 함께 유아교육기관의 학습을 직접 체험하면서 자녀가 다니는 기관에 대한 이해를 증대시키는 활동으로 확대 되고(허평순, 2014), 아버지가 유아교육기관의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거나 교사와 아버지간의 면담을 통하여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교육기관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는 등

의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었다(김근규, 2017). 아버지들은 어린이집 부모참여를 통하여 자녀 양육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 받을 수 있다. 최근 젊은 아버지들의 스마트폰을 이용한 부모참여는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하며 여러 사람과도 동시에 소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젊은 아버지들에게 익숙한 어린이집 부모참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박현주, 2013).

현재 유아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아버지들이 참여하고 있는 아버지참여의 유형을 살펴보면 아버지 교육, 아버지 교실, 아버지 참여수업, 휴대폰 및 SNS를 이용한 정보 공유, 아버지의 소모임(김근규, 2017)등으로 어머니들과 함께 참여하는 어린이집 부모참여유형과 크게 다를 바 없지만, 아버지들이 적극적으로 유아교육기관에 참여하여 자녀의 발달과 보육시설의 운영에 대한 협의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영유아의 성장, 발달에 미치는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아버지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 되고 있다(김근규, 2017). 어린이집 아버지 참여의 중요성을 살펴보면, 어린이집에 아버지가 참여했을 경우 아버지는 가정이 아닌 다른 상황에서 자녀의 행동과 특성을 관찰할 기회가 되어 좀 더 자녀에 대해 객관성을 가질 수 있으며, 또래 집단과의 발달 정도와 개인 차이를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며, 교사의 바람직한 교육방법 등을 배워 자녀양육에 있어 가정과 어린이집의 교육이 연계 될 수 있다(정계숙, 2007). 자녀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생기는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고, 자녀의 바른 성장과 교육방향의 혼란을 해결하며, 자녀교육의 확고한 신념과, 아버지 역할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아버지 참여는 필요하다(방한결, 2007). 이렇듯 어린이집 아버지 참여는 아버지가 책임을 가지고 자녀의 발달에 적합한 지식과 정보, 경험들을 자녀에게 제공하여 바른 성장을 돕는 활동으로, 자녀의 성장발달에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김수정, 2008).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보면 어린이집의 아버지 참여는 자녀의 전반적인 성장 발달에 대한 이해와 자녀의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아버지 자신에게도 부모역할을 재인식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또한 아버지들의 참여는 어린이집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어린이집과 연계된 자녀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사료된다.

3. 아버지 부모 참여에 관련 선행연구

아버지들이 자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자녀양육에 있어 유아교육기관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아교육기관의 부모참여에 대한 선행연구가 이루어졌다. 선행연구는 주로 영아기 아버지들의 부모참여에 대한 인식 및 요구(강경옥, 2002; 문성영, 2007; 박세진, 2010; 이인정, 2008)와 영아기 부모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활용도(권순임, 구수연, 2014)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졌다. 아버지들의 부모참여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강경옥(2002)은 아버지의 지식수준과 요구도 조사 연구에서 아버지들이 요구하는 부모참여의 내용은 영아의 건강과 양육에 대한 지식이며, 특히 영아자녀에게 바람직한 아버지 역할을 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을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문성영(2007)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기관에 따른 아버지의 부모교육에 대한 인식연구에서 두 기관 모두 아버지들은 올바른 자녀교육을 위해 아버지 부모교육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바람직한 아버지 역할에 대한 교육 내용에 대하여 요구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인정(2008)은 부모참여의 일종인 부모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조사 연구에서 아버지들 과반수가 부모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을 보고하

며 이전에 비해 아버지들의 부모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박세진(2010)은 유아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부모참여에 대한 아버지의 인식을 조사한 연구 아버지들은 주로 평일에 이루어지는 부모참여의 시간적 제약과 아버지들이 참여할 만한 내용의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 등이 아버지들의 어린이집 부모참여를 어렵게 한다고 보며 영아기 아버지들의 상황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신성숙(2017)은 영아기 아버지를 대상으로 부모참여의 요구를 조사한 결과에서 영아기 아버지들이 자녀의 사회, 정서발달에 대하여 관심이 높은 것으로 보고 하였으며, 아버지들이 부모참여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어린이집의 영아기 아버지 참여율이 낮은 것은 유아교육기관에서 영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참여가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원인으로 밝히고 있다. 권순임, 구수연(2014)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영아기 아버지교육이 자녀와의 놀이방법 지식을 습득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놀이 방법을 쉽게 익힐 수 있다는 점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아버지 교육을 선호하고 있었으나 놀이방법과 상호작용에 대한 교육방법의 제시가 아니므로 부모역할에 대한 반성적 사고를 제공할 기회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반면 이서연(2017)의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영아 아버지 교육이 양육참여와 태도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결과에서는 아버지들의 자신의 양육관과 양육철학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여 권순임, 구수연(2014)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지만, 스마트폰 앱을 통한 영아기 아버지교육이 전반적으로 자녀양육에 대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특히 자녀의 놀이방법과 양육지원 그리고 자기성장효과 부분에서는 같은 연구결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들은 영아기 아버지들이 부모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자녀의 발달 특성 및 양육방법 습득을 위한 교육내용에 대

한 요구를 보이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아직 영아기 아버지 부모참여에 대한 연구는 영아기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에 비해 상당히 미흡하게 이루어졌으며, 아버지 역할 증진을 다룬 연구 또한 영아 이외의 다른 연령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것이 현실이다(김성은, 2017). 이러한 점에서 영아기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참여에 대한 연구는 더욱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서울시에 소재한 어린이집에 영아기 자녀를 보내고 있으며 어린이집의 부모참여를 3회 이상 경험한 아버지 10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선정은 평소 어린이집 부모참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연구자 주변 어린이집의 추천과 영아기 아버지들의 자발적인 참여 동의를 통해 이루어 졌다. 또한 다양한 부모참여경험 사례를 수집하기 위하여 연구 참여자들의 영아기 자녀 연령 및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형 등이 고르게 포함 될 수 있도록 선정 하였다.

연구자는 참여자로 선정 된 영아아버지들에게 연구 목적과 진행 과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 하였으며, 수집 된 자료는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알렸다. 또한 언제라도 연구 참여자로서 역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리고 이러한 내용을 문서화시켜 연구 참여자들의 동의를 구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개인 보호를 위하여 연구에 사용되는 아버지의 이름과 자녀의 이름은 모두 가명 처리하였으며 연구 참여자의 배경은 표1과 같다.

〈표1〉 연구 참여 아버지의 일반적 배경

| 연구 참여자 | 연령 | 학력 | 직업 | 자녀 (성별, 연령) | 결혼 연차 | 맞벌이 여부 | 기관 형태 |
|---------------|----|-----|-----|-----------------|----------|-----------|----------|
| 가운.가희 아버지 | 38 | 대학원 | 공무원 | 1남1녀 만2세/만0세 | 6년차 | 맞벌이 | 가정 |
| 여름, 은솔 아버지 | 32 | 고졸 | 회사원 | 2남 만2세/만1세 | 8년차 | 외벌이 | 가정 |
| 나림이 아버지 | 35 | 대졸 | 자영업 | 1녀/만2세 | 3년차 | 외벌이 | 민간 |

| | | | | | | | |
|------------------|----|----|----------|-------------------|------|-----|-----|
| 라울, 라미 아버지 | 38 | 대졸 | 회사원 | 2녀 만1세/만3세 | 7년차 | 맞벌이 | 민간 |
| 세찬, 성빈, 수빈아버지 | 45 | 대졸 | 회사원 | 3남 만2세, 5세, 초2 | 13년차 | 맞벌이 | 민간 |
| 주아, 주미 아버지 | 39 | 대졸 | 자영업 | 2녀 만1세/만3세 | 7년차 | 외벌이 | 민간 |
| 도담, 다희 아버지 | 41 | 대졸 | 회사원 | 1남/1녀 만2세/만4세 | 6년차 | 맞벌이 | 국공립 |
| 미애, 미현 아버지 | 40 | 대졸 | 육아 휴직 | 2녀/ 만1세/만4세 | 8년차 | 맞벌이 | 직장 |
| 바다, 별이 아버지 | 37 | 대졸 | 회사원 | 2남 만0세/만2세 | 5년차 | 맞벌이 | 법인 |
| 초아, 초원 아버지 | 41 | 대졸 | 회사원 | 1녀1남 만1세/만3세 | 7년차 | 외벌이 | 법인 |

(1) 가온, 가희 아버지

가온, 가희 아버지는 결혼 6년차로 현재 공무원으로 배우자와 맞벌이를 하고 있다. 자녀는 만2세 가희와 7개월 된 가온이가 있다. 자녀들은 현재 가족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가정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으며 가희는 배우자의 출산휴가 이후인 생후 3개월부터 현재까지 지금의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고 하였다. 유아반이 되는 내년에는 가희를 다른 시설로 보내야 해서 둘째 가온이와 가희를 출근 시간에 등원을 시켜야 하는 문제로 고민이 된다고 한다. 또한 지금까지 익숙한 어린이집이라 다른 시설에 보내게 될 때의 가희의 정서적 불안감이 요즘 부부의 가장 큰 걱정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최근에는 자녀에 신학기 적응을 잘 도울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아버지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하였다.

(2) 여름, 우술 아버지

이제 막 돌을 지난 1세 여름이와 만2세 우술이 아버지는 통신회사 기술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부모참여에 관심이 무척 많았다. 어렸을 때 삼남매를 잘 데리고 놀아주신 아버지의 기억이 있어 아버지 스스로도 자녀에게 재밌게 놀아 주는 아버지로 기억되고 싶다고 하면서 지금 세대에 맞는 놀이방법에 대해 궁금함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여름이 아버지는 통신회사에 종사하고 있다는 특수성으로 모바일이나 통신기술을 이용한 교육 콘텐츠에도 관심을 보였다. 여름이 아버지는 주로 손으로 일하는 직업 특성으로 청취하는 오디오 유아교육자료를 이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현재 만2세 우술이는 가정형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으며, 만1세 여름이는 형 우술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대기가 너무 많아 다른 가정어린이집에 맞춤형보육을 이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3) 나림 아버지

나림이 아버지는 4살 딸을 둔 결혼 3년차의 외벌이 아버지이다. 아버지는 현재 여성 의류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옷의 제작부터 온라인 판매까지 하고 있어 굉장히 바쁜 하루를 보낸다고 하였다. 연구자와의 면담 중에서도 수시로 전화가 오거나 주문이 들어오는 전화로 면담이 끊기는 일들이 잦았다. 나림이 아버지는 딸에 대한 애정과 관심만큼은 특별하여 시간이 날 때마다 딸이 좋아하는 인형놀이를 한다고 한다. 하지만 딸과 놀이 할 때마다 의사소통이 너무 어렵다고 이야기 하였다. 현재 자녀는 민간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으며 아빠가 어린이집에 오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나림이를 위해 어린이집 아빠수업에 참여하게 된다고 하였다.

(4) 라울, 라미 아버지

만1세, 만3세 두 딸을 둔 라울과 라미아버지는 제약회사에 다니고 있는 회사원이다. 아버지는 다른 아버지들과 마찬가지로 자녀의 어린이집 생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좀 다른 이유에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큰 딸 라미가 다니던 보육시설에서 아동 학대 의혹 사건이 있는 후 한동안 홈스쿨링을 했었다고 이야기 하면서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문제를 크게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배우자의 복직으로 다시 어린이집을 다니고 나서부터 예전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어린이집 부모참여를 통하여 자녀의 어린이집과 소통하고자 노력한다고 하였다. 지금은 두 딸이 같은 민간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으며, 안심하고 라울이와 라미를 보내고 있다고 하였다.

(5) 세찬, 성빈, 수빈 아버지

세찬이 아버지는 건설회사에 다니는 3남을 둔 다자녀 아버지이다. 배우자는 1년 전 막내 세찬이가 3살이 되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세찬이 아버지도 직장에서 돌아오면 자녀 양육과 가사 일을 배우자와 함께 분담하고 있다고 하였다. 아이들과 놀아주기, 세탁기 돌리고 빨래 널기 등이 세찬이 아버지 담당이며 배우자의 권유가 있으면 어린이집 부모 참여에 가게 된다고 하였다. 현재 학령기 수빈이와 만5세 성빈이 그리고 만2세 세찬이 삼형제가 있으며 성빈이와 세찬이는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다자녀 아버지이지만 직접적인 양육 경험은 많지 않아 막내 세찬이 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놀이에 관심이 많다고 하였다.

(6) 주아, 주미 아버지

3세, 5세를 딸 자녀를 둔 주아 아버지의 직업은 공인중개사이다. 아버지가 직접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라 평일의 출, 퇴근이 자유롭다는 장점은 있으나 주말과 휴일에도 거래가 있을 시에는 쉬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고 하였다. 특히 토요일 오전에는 아버지 혼자 회사에 있어 어린이집의 행사가 있을 시에는 참여가 어렵다고 하였다. 다른 아버지들과 다른 근무시간으로 두 딸의 행사에 매번 참석을 못하게 될까봐 염려가 된다는 주아 아버지는 가능하면 미리 어린이집에 행사 일정을 알아보고 고객과의 일정을 조정하면서 가급적 참여를 하려고 노력 한다고 하였다. 주아 아버지는 자영업이라 시간이 자유롭다고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겠지만 회사 생활처럼 월차를 내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직업 구조가 아니라 생업과 연결된 문제라 항상 갈등이 생긴다고 하였다.

(7) 도담, 다희 아버지

도담이 아버지는 4세 도담이와 6세 다희를 둔 결혼 6년차의 맞벌이 회사원이다. 먼저 출근하는 배우자를 도와 두 자녀들의 어린이집 등원준비를 전담하고 있었으며 현재 도담이와 다희는 국. 공립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고 하였다. 도담이 아버지는 좋은 아빠가 되고자 하는 마음의 열망이 무척 크지만 현실적인 부딪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 도담이 아버지는 자녀들이 점점 커가면서 바람직한 훈육방법과 아버지 스스로의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어 하였으며, 이러한 이유에서 어린이집 부모참여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도담이 아버지는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특별한 기억이 없었으므로, 도담이와 다희가 성장 후에 좋은

아버지로 기억에 남기를 원한다고 하였다.

(8) 미애, 미현 아버지

미애 아버지는 만1세와 만4세 딸을 둔 결혼 8년차 경찰공무원이다. 배우자 역시 공무원으로 두 자녀는 현재 아버지의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 미애 아버지는 배우자의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여 현재 자녀의 육아를 위해 본인이 육아 휴직 중이라고 하였다. 만1세 영아 자녀는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게 하기 위하여 오전 중에만 어린이집 보내고 있으며, 오후에는 주로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였다. 미애 아버지는 미애와 미현이를 돌보는 것이 오히려 적성에 맞는다고 하면서 두 딸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것이 행복 하다고 하였다. 큰 딸 미현이가 아버지에게 ‘우리를 위해서 회사를 끊어주셔서 감사 합니다’ 라고 이야기 했을 때 뿌듯했다는 미애 아버지는 사회적인 성공보다도 딸의 미래가 더욱 소중하고 딸들이 밝게 커 주는 것이 고맙다고 이야기하였다. 아버지는 현재 자녀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의 학부모 운영회 위원장으로 어린이집의 전반적인 일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하였다.

(9) 바다, 별이 아버지

바다 아버지는 만0세와 만2세 두 아들을 키우는 아버지로 결혼 5년차의 맞벌이 아버지이다. 현재 9개월 된 0세 바다와 만2세 별이는 부부가 다니고 있는 교회 부설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 바다아버지가 교회 부설 어린이집을 선택한 이유는 기독교라는 신앙적인 믿음이 가장 컸으며, 자녀의 담임 선생님들과 원장님도 매주 주일날 보는 집사님과 교인들이라서 마음이 놓이

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바다 아버지는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나서 간간히 교사들과의 상담을 통하여 한주 동안 자녀들이 어린이집에서 지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9개월의 바다를 현재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지만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해당 어린이집이 7세반까지 운영되고 있어서 새로운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아도 되어 아버지는 무척 다행이라고 하였다.

(10) 초아, 초원 아버지

만3세 초원이와 만1세 초아를 둔 아버지는 결혼 7년차의 외벌이이며 현재 IT관련 회사에 다니고 있다. 초아 아버지의 회사 특성상 일정한 퇴근 시간이 없으며 잦은 지방출장과 해외출장으로 두 자녀들의 양육은 거의 배우자가 돌보고 있으며 평일에는 자녀들이 잠들고 난 10시 이후에나 귀가를 하게 된다고 하였다. 배우자와는 직장에서 만난 사내 커플로 배우자도 바쁜 회사에 대해 잘 알고 있어 초원이가 태어났을 때까지도 남편을 이해했지만 둘째 초아가 태어나고 나서는 양육스트레스가 심해서 우울감을 느끼며 남편의 늦은 귀가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 초아 아버지는 이러한 회사의 일 때문에 가정에서의 고립감을 느끼고 두 자녀와 배우자와의 관계개선의 필요성도 느끼게 된다고 하였다. 초아 아버지는 회사일 때문에 바쁘지만 주말에는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초원과 초아 그리고 배우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아버지 역할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였다.

2. 연구 절차

1) 예비 연구

본 연구의 연구 주제 및 면담을 위한 질문의 적절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8년 9월 22일과 2018년 9월 30일에 예비연구를 실시하였다. 예비연구는 어린이집 부모참여에 2회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으며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영아기 아버지 2명을 대상으로 각 1회의 개별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장소는 평소 자녀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이 친숙하다는 아버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자녀의 어린이집에서 주말과 휴일에 실시하였으며 개별 면담에 소요된 시간은 각 1시간 정도로 장소와 면담시간에 따른 어려움 없이 진행되었다.

예비연구과정을 통하여 아버지들이 과거와는 다른 아버지 역할이 필요함을 인식하면서도 여전히 소극적이고 보조적인 자녀양육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또한 자녀양육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안의 하나로 어린이집 부모참여가 도움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비연구에서 도출된 내용을 토대로 연구 참여자 배경 및 어린이집 부모참여 동기, 어린이집 부모참여 경험, 어린이집 부모참여를 통한 아버지들의 변화와 요구의 내용을 반영하여 심층 면담을 질문 구성하였다. 또한 사회생활로 바쁜 아버지와 면담은 시간과 장소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임을 확인하고 본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들의 개별적 상황을 고려한 면담 장소와 시간을 계획하였다. 예비면담에서 도출된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의 심층면담 질문 목록을 구성하고 면담 진행과정을 통해 질문을 보완해나가고자 하였으며, 심층면담 질문의 내용구성은 표2와 같다.

<표 2> 면담 질문 내용 구성

| 구분 | 내용 |
|---------------------|---|
|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배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참여자의 인구학적 배경 - 자녀의 어린이집 유형 및 선택 이유 - 아버지 역할에 대한 인식 - 자녀양육 참여 및 가사 분담에 대한 인식 |
| 어린이집 부모참여 동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 양육 경험 및 양육지식 배경 - 어린이집 부모 참여 배경 - 어린이집 부모참여 필요에 대한 인식 |
| 어린이집 부모참여 경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험한 어린이집 부모 참여 유형 - 어린이집 부모참여의 긍정적 경험 - 어린이집 부모참여의 부정적 경험 - 어린이집 부모참여 전·후의 변화 경험 |
| 어린이집 부모참여에 대한 요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부모참여과정에서의 어려움 - 어린이집 부모참여의 효율적 운영 방안 |

2) 심층면담

심층 면담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4개월간의 연구기간 동안 연구 참여자 10명의 영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와 각 2회씩 개별면담으로 진행하였다. 면담은 연구 참여 아버지들의 요청에 따라 아버지들의 자녀가 재원하고 있는 어린이집이나 연구 참여자의 집 근처 편리한 장소에서 진행하였으며, 면담 소요시간은 1회당 1시간에서 1시간30분 정도로 실시하였

다. 면담 내용은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모든 내용을 녹음 하였고 연구 참여 아버지들이 면담 과정에서 보이는 표정이나 행동에서의 느낌 등을 메모하였다.

1차면담에서는 연구 참여 아버지들과의 라포(rapport)형성을 목적을 하여 면담 초반의 10분~20분 정도는 어머니와 자녀도 함께 인사하는 시간을 마련하여, 편안한 분위기에서 연구의 목적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자녀와 어머니가 돌아 간 후 아버지와의 면담에 앞서 참여 동의서에 승인을 받는 과정을 거쳤다. 면담이 시작되면서 아버지들의 인구학적 배경 및 자녀 양육 경험에 대한 질문과 아버지 역할에 대한 영아기 아버지들의 인식을 반 구조화된 질문과 개방된 질문을 함께 사용하면서 아버지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2차면담에서는 영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의 어린이집 부모참여 경험을 중심으로 면담이 이루어졌다. 아버지들의 어린이집 부모참여 동기 및 구체적인 부모참여 경험 사례, 부모참여를 통한 아버지들의 변화경험, 부모참여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 등의 요구사항들을 질문하고 아버지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또한 1차면담 때 연구자가 확인하고 싶었던 내용에 대해 추가 질문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의미를 확인하고 재해석 해보았다. 개별 면담 후 추가적으로 더 수집해야 하는 부분은 전화나 SNS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 하였으며, 1차와 2차 아버지들과의 심층 면담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는 녹음파일 총 23시간45분과 전사본 A4용지 143장이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는 심층면담의 녹음자료와 전사본이다.

본 연구 참여 아버지와의 심층면담을 통한 녹음된 자료는 24시간 내에 전사 하여 아버지와의 면담의 느낌과 현장 상황맥락을 그대로 전달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아버지들과의 심층면담 녹음내용을 여러 번 계속하여 반복하여 듣고 아버지들의 비언어적 표현에 대한 연구자의 메모도 확인하면서 전사 된 내용을 계속 해서 읽으면서 의미를 요약하여 일관성 있는 의미로 범주화 및 유목화 시켜 해석하려 노력하였다.

자료 분석은 영아기 아버지들과의 면담과 문서에서 수집한 자료를 중심으로 아버지들의 면담에서 중점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의미가 무엇인지 귀납적 방법을 사용하여 해석하며 일관성 있게 드러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노력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범주화 과정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3개의 상위범주와 9개의 하위범주가 최종 선정되었다. ‘어린이집 부모참여에 대한 동기’의 상위범주에는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한 소망’, ‘영아 자녀의 양육 어려움 해소방안’, ‘자녀교육관 차이로 인한 부부갈등 해소’의 하위범주가 도출되었고 ‘어린이집 부모참여를 통한 변화’의 상위범주에는 ‘아버지 역할의 재정립’, ‘친밀한 가족 관계 강화’, ‘어린이집에 대한 이해 증진’의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또한 ‘어린이집 부모참여에 대한 요구’의 상위범주에는 ‘아버지 강점을 반영한 부모참여’, ‘시대 변화에 따른 형식의 변화’의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이렇게 수집된 면담 자료 분석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최종 범주화 된 자료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보내어 연구자의 해석이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본 연구의 목적과 진행과정을 잘 이해하고 있는 유아교육 전문가와 보육 관련자 2인의 조언을 받고 검증을 받는 과정을 거쳐 연구 해석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연구주체에 따른 범주화 과정은 아래 <표3> 과 같다.

〈표3〉 영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부모참여 경험 범주화 과정

| 구분 | 1차 범주화 | 2차 범주화 | 최종 범주화 |
|----------------------------------|--|---|--|
| 어린 이집 부모 참여 동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 부양자 -보호자 -육아참여자 -한 가정의 가장 -아버지에 대한 기억 -자녀와의 소통 어려움 -아버지의 자녀 교육관 -양육방식의 차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육지역할을 잘하고 싶은 아버지들의 염원 -멀어지는 자녀 -아버지 역할 어려움 -부모참여에 대한 필요성 인식 -가정의 평화 -자녀교육에 대한 부부갈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은 아버지의 소망 -영아자녀의 양육 어려움 해소 방안 -자녀교육관 차이로 인한 부부갈등 해소 |
| 어린 이집 부모 참여 변화 경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과 가정의 균형 -아버지 참여를 좋아하는 자녀모습 -가정과 다른 자녀의 모습에 대한 생소함 -어린이집에 대한 호기심 -어린이집 방문 기대 -고마운 선생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버지 역할의 인식 변화 -양육과 가사의 공동 책임자 -배우자, 자녀의 변화 -체계적인 교육과정 -자녀의 어린이집에 대한 관심과 기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버지역할의 재정립 -친밀한 가족관계 강화 -어린이집에 대한 이해 증진 |
| 어린 이집 부모 참여 요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색한 어린이집 -불편한 부모참여 내용 -양육 지침에 대한 요구 -다양한 정보통신 활용 -회사에 눈치 보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성으로서의 아버지 참여 -다양한 부모참여 방식요구 -실질적인 양육방식에 대한 요구 -사회의 인식 변화와 실질적인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버지 강점을 반영한 부모 참여 -시대 변화에 따른 형식의 변화 |

IV. 결과 및 해석

본 연구에서는 영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의 어린이집 부모참여 동기를 알아보고, 아버지들이 생각하는 부모참여를 통한 변화와 부모참여에 대한 아버지들의 요구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 문제에 따른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집 부모참여 동기

영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의 부모참여 동기를 분석한 결과, 본 연구에 참여한 아버지들은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영아 자녀의 양육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자녀교육관 차이로 인한 부부갈등 해소를 위하여 어린이집 부모참여에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한 소망

본 연구에 참여한 아버지들은 자녀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은 마음으로 어린이집 부모참여를 하게 된다고 하였다. 아버지들은 자녀에게 훗날 좋은 아버지의 모습으로 기억되길 소망하고 있었으며, 자녀의 인성과 가치관 형성에 있어 바람직한 모델링이 되고자 노력하고 자녀 곁을 지킬 수 있는 든든한 아버지가 되고자 최선을 다한다고 하였다.

부모님 세대에는 아버지 역할이 경제적인 부분, 돈을 벌어드는 역할이었고 가사나

육아에 대해서는 거의 도외시 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저희는 그걸 바라보고 성장했잖아요. (중략) 지금 과거 그런 아버지 역할이 문제가 많이 되는 거 같아요.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되고요. 나중에 아이들에게 기억에 남는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돈만 벌어서 주는 아버지가 아닌 자녀와 소통하는 아버지가 되고 싶어 어린이집에서 하는 부모참여에 가게 됐어요.

(가온, 가희 아버지 면담 2018.10.28)

저도 아버지가 완고하신 분이래 저희도 거의 어머니가 키우셨거든요. 게다가 대학교 이후에는 캐나다로 유학도 가고 해서 아버지와 못 지내다보니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참 많이 그리웠지만 점점 커갈수록 그게 좀 서먹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정말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요. 항상 곁에 있으면서 아이들과 필요할 때 곁에 있어 주는 아빠가 되고 싶고요. 그래서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은 마음으로 부모참여를 갔죠.

(도담, 다희 아버지 면담 2018.10.28)

아이들에게 정서적인 부분에 제가 많은 영향을 끼치는 거 같아요. 저 또한 어렸을 때 아버지의 모습과 지금 아버지를 바라볼 때는 느낌이 틀리죠. 늘 보고 싶고 그렇지만 만나면 서먹서먹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만약 저희 아이들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느낀다면 전 싫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 아버지와는 다른 느낌의 아버지가 되고 싶어서 부모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미애, 미현 아버지 면담 2018.11.03)

위의 사례들을 통해 본 연구에 참여한 아버지들이 좋은 아버지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실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으며, 이러한 아버지들의 소망이 어린이집 부모참여를 통해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버지들은 또한 부모는 자녀의 거울, 이라는 말처럼 자신의 행동과 가치관이 자연스럽게 영아기 자녀에게 투영되어 아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는 자녀

들에게 바람직한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주고 싶은 아버지들은 제대로 된 모델링 역할을 위하여 부모참여가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아직 어리다보니 성장과 신체적 발달 뿐 아니라 나림이에게 생각이나 가치관 그리고 인성교육에 대해서 제가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려고 노력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먼저 부모교육을 통해서 올바른 가치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림 아버지 면담 2018.11.10)

아직 어려서 올바른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도움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일 것 같아요. (중략) 인성교육은 어렸을 때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전 요즘은 아이들 지식보다는 저는 인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사하기, 예절, 이런 것을 가르치게 되요, 존댓말, 예절의 기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애가 한참 말을 배울 때라서 저와 배우자가 서로 존댓말을 합니다. 라울이 에게도 존댓말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존대를 하고 있어요. 아이의 눈높이 맞는 교육을 하려면 부모가 먼저 배워야 할 것 같아서 부모교육에 가게 되었죠.

(라울, 라미 아버지 면담 2018.11.25)

아이들에게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야 할 것에 대해서 규율과 규칙을 정해 배우자와 함께 채찍과 당근의 역할을 나누어하고 있어요. 주로 아빠가 혼을 내면 엄마가 달래주는 역할을, 그리고 엄마가 혼을 내면 아빠가 달래주는 역할을 해서 부모 중 누구 한사람이 선 역이나 악역을 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두려운 존재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행동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부모는 아이들의 거울이지 않습니까. 아이들 앞에서는 제가 바른 행동으로 모범을 보여야 하니 어린이집 부모참여를 통해서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죠.

(주아 주미 아버지 면담 2019.01.11)

위의 사례처럼 아버지들은 자녀들의 가치관형성에도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

을 인식하며, 자녀의 인성교육과 예절교육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아버지들은 가정의 가사 분담 뿐 아니라 영아기 자녀의 가정 내에서의 규칙과 규율 및 훈육과 칭찬의 역할분담을 배우자와 나누어 수행하고자 하였으며 예전의 엄격하기만 아버지 역할을 벗어나 자녀들에게 때로는 친구처럼 친숙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때로는 엄격한 훈육과 교육자의 역할을 하고자 하였다.

아버지들은 또한 어린이집의 부모참여에 아버지가 참석하지 못했을 경우 어린자녀가 받을 마음의 상처에 대한 안타까움과 미안함, 자녀의 자존감 상실 등을 염려하여 바쁜 일정 속에서도 부모참여에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가 지금은 육아휴직이라 어린이집행사에 가는 것이 제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바빠서 참여수업에 못 오시는 가정을 보면 아이들이 안타까워 보이죠.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의무감에 가는 것도 있어요.

(미애, 미현 아버지 면담 2018.11.03)

바쁘면 어린이집 행사에 못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별이 한테 너무 미안하고 또 다른 가정은 엄마, 아빠가 같이 왔을 텐데 제가 안가면 별이가 의기소침 해 질 거 같았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참여하려고 합니다.

(바다 별이 아버지 면담 2019.01.17)

배우자나 제가 부모참여에 안가면 세찬이가 '우리 부모님은 안 오셨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았어요. 직장에 있어도 마음에 걸리고 해서 시간을 내서 갈 수 있으면 최대한 가려고 하죠. 아이가 마음에 상처를 받으면 안 되니까요. 지난번 부모참여에 갔었는데 부모님이 안 오신 아이의 얼굴을 봤었는데 너무 잊혀 지지가 않았어요, 지금까지 그 잔상이 남아서 제가 시간이 안 되면 집사람이라도 참석하게 하고 집사람이 안 되면 회사에서 조퇴를 해서라도 가려고 합니다.

(세찬, 성빈, 수빈 아버지 면담 2018.11.16)

딸들 때문에 부모참여를 하게 되었어요. 다른 아빠들도 바쁜 시간을 내어 참여하는데 제가 참석하지 않으면 배우자와 딸아이에게 할 말이 없을 것 같았어요. 아무리 일 때문에 바빠도 주아나 주미를 위해서 제가 일을 하는 거니까 일이 아이들 보다 우선 순위는 아니라 가능하면 아이들을 먼저 챙기려고 노력 합니다.

(주아, 주미 아버지 면담 2018.10.29)

이처럼 아버지들은 부모가 참여하지 못한 다른 자녀의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보았던 경험이 있는 경우 자신의 자녀와 동일 시 되어 어린이집 부모참여 동기가 더욱 강화 되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었다.

2) 영아 자녀의 양육 어려움 해소 방안

본 연구에 참여한 아버지들은 자녀 양육에 대한 경험부족과 영아기의 발달 특징에 대한 지식부족으로 심리적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었으며 이러한 심리적 스트레스가 부부관계 및 자녀에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아버지들은 이와 같은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어린이집 부모참여를 통해 자녀양육 어려움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다.

저도 모르게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게 되고 그러면 나림이가 저를 무서워해서 저에게 더 안 오려고 하는 악순환이 생기죠. 아직 말을 알아듣기도 힘들고 행동도 통제하기에 어렵다보니 힘들었어요. 옷을 입히려고 해도 안 오고 떼도 부리고 하니, 지금도 잘 놀다가도 원하는 데로 안 되면 갑자기 짜증내고 울고 해서 좀 힘이 들어요. 왜 나림이가 그러는지 원래 이 나이 아이들의 특성이 이런 건지,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서 참여하게 됐어요.

(나림이 아버지 면담 2018,12,15)

배우자가 먼저 출근을 하고나면, 아침에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 정말 그러면 안 되지만 저도 모르게 아이들한테 고함을 지르게 되네요. 그런 날은 마음이 참 불편해지고 제 자신이 무기력하기도 하면서 부모로서 제가 참 능력이 없다는 생각과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해서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안 잡혀요. 그래서 옳은 훈육방법이라던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몰라서 답답했죠. 마침 어린이집에서 양육방식에 대해 부모참여가 있다고 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 아내와 함께 신청을 했었습니다.

(도담, 다희 아버지 면담 2018,12,15)

둘째 아이 목욕을 시킨다거나 기저귀를 갈아줘도 저는 좋은 마음에서 하는데 남자 손길 이다보니 애 엄마보다는 당연히 서툴죠. 그런데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지 번번이 다시 해야 한다면서 잔소리를 합니다. 몇 번 그런 일들이 반복되니 자신감도 없어졌어요. 제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좀 알고 싶었고 양육에 대한 지식을 보충하고 싶어 참여하게 되었어요.

(여름, 우슬 아버지 면담 2019.01.20)

위 면담사례에서 보듯이 아버지들은 영아기 자녀의 발달에 대한 지식부족과 양육경험 부족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아버지들은 배우자를 대신해서 자녀의 어린이집 등원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으며, 아버지 자신들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고 이야기 하였다. 아버지들은 이러한 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어린이집 부모참여를 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희 애들도 아직 놀다가도 엄마가 안보이면 엄마를 많이 찾는 편인데 아이가 아플 때는 저도 부모지만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아이 엄마랑 같은 시기에 부모가 됐지만 배우자는 모성본능인지 능숙하게 잘 대처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아이들이 울고 그러면 많이 당황스럽고 겁도 나요. 아들 셋을 키우고 있지만 막내 세찬이가 떼쓰고 울면

진땀이 나더라고요. 대체 왜 우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세찬이 엄마는 단숨에 알아버리니 그럴 땐 참 허탈하기도 해요. 여태까지는 아내가 아이들을 키웠지만 세찬이에 대해서는 알고 싶어졌죠. 그래서 부모참여에 갔습니다.

(세찬, 성빈, 수빈 아버지 3면담 2018,12,15)

우리 미애가 밥을 잘 안 먹으려고 해요. 저희는 밥을 먹으면 대신 간식을 주거나 사탕이라도 주고 했는데 부모참여에 갔다가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했더니 선생님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좋지 않는 식습관이 될 수 있다고 가급적 식사시간 전에는 간식을 주지 말라는 팁을 주셨어요. 사실 부모들은 그런 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선생님과 상담하고 나서 단호하게 배우자와 미애 식습관을 위해서 그렇게 했죠. 그리고는 한 몇 개월 쯤 했을까 차츰 식습관이 잡혀 가는 것 같았어요. 사실 그때 많이 힘이 됐습니다.

(미애 미현이 아버지 2018,12,08)

웃을 때는 천사같이 너무 예뻐요. 그런데 한번 떼를 부린다거나 울거나 하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아기들 울음에는 다 의미가 있다고 어린이집 부모참여 때 어린 아기에 대한 특징이라고 해서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이해 못했던 초아의 울음을 조금씩 이해되었어요. 아무래도 초원이 키울 때는 덜 울었는데 초아랑 많이 다르다 보니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부모참여를 통해서 아이들마다 다 개성과 특성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초아, 초원 아버지 면담 2018,12,08)

위의 사례에서처럼, 아버지들은 자녀의 문제를 해결 해줄 수 없을 때 답답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세 자녀를 키우고 있는 세찬이 아버지도 세찬이의 갑작스러운 울음에 당황했던 기억을 이야기하며, 영아 자녀 양육에 있어 다 자녀의 경험도 아버지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느낀다고 하였다. 대부분 아버지들은 자녀의 울음에 대한 반응으로 건강에 이상이 없음이

확인 되고 나서는 울음의 원인을 이해할 수 없거나 달래도 그치지 않았을 경우 아버지 자신도 화가 난 경험이 있다고 하며 그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당황스럽다고 하였다. 이처럼 영아아버지들은 자녀들이 보이는 행동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에 대해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으며, 이를 해결하게 위한 하나의 방안이 어린이집 부모참여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3) 자녀교육관 차이로 인한 부부갈등 해소

본 연구에 참여한 아버지들은 아내의 권유에 의하여 어린이집 부모참여에 가게 된다고 하였다. 영아기 아버지들은 배우자가 신청한 부모참여를 거절했을 때 배우자와 관계가 불편해지는 것을 우려하였으며, 부부의 자녀교육에 대한 가치관 차이를 좁히고 아빠의 어린이집 방문을 희망하는 자녀의 바람을 들어주어 배우자와의 자녀교육에 대한 부부의 교육관 차이로 인한 갈등을 해소 하고자 하였다.

저는 그냥 집사람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날 회사에서 바쁜 일이 있었는데 안 가면 또 아내와 사이도 불편해지고, 그래서 참여한 케이스예요. 아무래도 가정의 평화 그런 거죠. 회사에도 눈치는 보이는데 그래도 배우자가 신청했는데 안 가는 것도 말도 안 되죠. 어린이집에 안가면 관계도 서먹하고 불편해져요.

(라울, 라미 아버지 면담 2019.01.19)

아무래도 집사람의 권유죠. 우리 큰아이 때도 두 번인가 참석했는데, 사실 좀 피곤하기도 하고 토요일이라서 좀 쉬고 싶은데 자꾸 아내가 가야 한다고 해서 일단 갔습니다. 잠을 자더라도 어린이집에 가서 자자 이거죠. 막상 가면 좋은데 선뜻 스스로 참여 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세찬, 성빈, 수빈 아버지 면담 2019.01.20)

어린이집 재통잔치 날 이었는데 회사일로 바빴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신신당부하고, 우솔이도 꼭 오라고 하고 그래도 안가면 집에서 아내가 아무래도 뭐라고 했겠죠. 우솔이도 실망하고. 그래서 회사에 얘기하고 어린이집에 가서 참여 했다가 다시 회사에 가서 야근했던 적이 있어요. 몸은 피곤한데 맘은 편하죠. 지금 생각해도 잘 한 일 같아요.

(여름, 우솔 아버지 면담 2018.01.19)

위의 사례처럼 배우자의 권유와 참여 신청으로 어린이집 부모참여에 가게 된 아버지들은 부모참여를 거절했을 경우 생기는 부부갈등을 우려하여 배우자의 권유를 수용한다고 하였다. 이렇듯 영아기 아버지들은 어린이집 부모참여 통하여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아버지들은 자녀가 태어나 점차 성장하면서 자녀의 교육에 대해 배우자와 간간이 의견 차이를 보여 부부갈등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려하여 어린이집 부모참여를 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나 배우자 둘 다 아이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은 편입니다. 물론 모든 부모가 그렇겠죠. 그런데 배우자는 과잉보호라고 해야 하나? 좀 심하다 싶을 때가 있어요. 우리 나림이가 외동이다 보니 (중략). 그런데 나림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게 두어야 하는데 애 엄마는 다친다고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병 걸린다고 모래 놀이도 못하게 하고, 4살인데 아직도 밥 떠먹여주고 이러다보니 주로 아이 문제로 갈등이 생겼었어요.

(나림 아버지 면담 2018.11.10)

저는 강원도 출신이고 배우자는 서울 사람 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산이랑 들이랑 누비며 뛰어 다니며 자랐거든요. 그래서인지 아이들이 자연과 더불어 살기를 바라는 데 아내는 벌써부터 아이들한테 영어나 한글 이것저것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요즘은 평생 공부잖아요. 애들은 지금 놀지 않으면 못 노는데 (중략). 어린이집에서 마침 가족 동반 산행 참여 프로그램이 있었죠. 아내는 산에 가는 것이 힘들다고 참가를 안 한다

고 했는데 제가 아내를 설득해서 세찬이랑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세찬, 성빈, 수빈 아버지 면담 2019.01.20)

저는 배우자가 집에 있다 보니 아이들을 배우자가 잘 키웠으면 했습니다. 요즘 너무 조기교육도 많이 시키고(중략), 우리 주아를 조금 더 클 때까지 엄마가 키웠으면 좋겠는데 자꾸 아이 교육 때문에 어린이집을 보낸다고 해서(중략) 문화센터에 잘 데리고 다니던 배우자가 갑자기 어린이집에 보낸다고 상담을 하러 가자고 했어요. 세상 아이한테는 어떤 교육을 하는지 보러가게 됐었죠.

(주아, 주미 아버지 면담 2019.01.26)

위의 사례에서처럼 영아기 아버지들은 아이들은 자연 속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뛰어 놀면서 건강하게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큰 반면 배우자인 배우자들은 영아 자녀에게 영어와 한글 조기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자녀의 안전과 위생을 염려하여 경험보다는 보호에 치중하는 양육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영아기 아버지들은 어린이집 부모참여 통해 자녀교육에 대한 부부의 교육적 가치관에 대한 이견을 좁히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2. 어린이집 부모참여를 통한 변화

본 연구에 참여한 영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은 어린이집 부모참여를 통한 아버지 역할의 재정립, 친밀한 가족관계 강화, 어린이집에 대한 이해 증진을 경험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아버지 역할의 재정립

본 연구에 참여한 아버지들은 어린이집 부모참여를 통하여 스스로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아버지들은 부모참여 과정에서 양육자신감을 되찾고 보호자로서의 책임감과 성취감을 느끼며 아버지 역할을 재정립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하였다.

아버지들은 부모참여를 경험하면서 아버지 자신이 가정 내에서 어떤 아버지였는지 스스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회사 동료들 대부분이 경제적인 것, 배우자의 가정에 대한 무관심, 이 두 이유로 부부가 싸우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한 가지라도 아내와의 싸움요소를 제거 하려고 노력 합니다. 어린이집 부모참여를 통해서 아내도 저만큼 부모가 됨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알았죠. 육아는 함께 해야 더 시너지가 있다는 교육내용이 참가슴에 와 닿았어요. 소중한 내 아이를 너무 무관심하게 대했던 걸 반성하면서 교육 동안에 아이들이랑 배우자한테 너무 미안했습니다.

(가온, 가희 아버지 면담 2018.11.10)

아버지의 역할이 물론 중요한건 알고 있었지만 아이에게 크게 영향을 미칠지는 몰랐습니다. 우리 도담이랑 다희에게 미안했어요. 그래서 부모참여를 하고 난 그 이후에는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가지려고 했어요. 퇴근 하고나서도 예전에는 많이 피곤해서 배우자가 아이들이랑 좀 놀아주라고 하면 건성건성 놀아주는 척 했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귀찮아 할 정도로 제가 주도적으로 놀아주고 있습니다.

(도담 다희 아버지 면담 2018.12.15)

부모참여를 다녀왔는데 아이들이 중학교 이상 되면 지금처럼 아빠를 찾지 않는다고 아이들이 원할 때 충분히 놀아주고 안아주라던 부분들이 많이 와 닿았어요. 제가 느끼기에도 지금 이 어린 시절이 아이들한테 제가 제일 필요할 때 인거 같아요. 이런

시기에 회사일로 애들 키는 모습을 놓치면 후회할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가급적이면 애들이 어느 정도 성장 할 때까지는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름, 우슬 아버지 면담 2019.01.19)

적어도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제가 집안일이나 아이들 씻기고 집사람에게는 좀 쉬라고 해요. 제 본가가 인천 인데 2주에 한번 정도 아이들만 데리고 다녀오는 편입니다. 요즘 헬 육아라고 하잖아요. 배우자에게도 육아에서 잠시 벗어나는 시간을 주고 싶었어요. 예전에는 배우자 하는 일이 아이들 돌보는 일이고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어떤 광고를 보니 아빠에게 아이가 집에 또 놀러오라고 했던 광고카피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도 아이들에게 그런 아빠로 남아있게 될까봐 솔직히 두렵기도 했어요.

(초아 초원 아버지 면담 2018.12.22.)

위의 사례처럼 아버지들은 그동안 바쁜 회사 일을 이유로 자녀의 양육을 배우자에게 맡기고 소홀히 여긴 부분에 대해 자녀와 배우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였다. 아버지들은 부모참여를 통하여 아버지 역할의 재정립의 계기가 되면서 자녀들에게는 보다 적극적인 양육자의 역할을 수행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육아로 고단한 배우자를 위로하며 공동양육자로서 자녀양육을 책임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어린이집에서 딸기 모종을 가져 왔어요 . 가온이가 태어나고 저랑 같이 둘이서 무언가를 하면서 긴 시간동안 성취감을 느낀 활동은 처음인거 같아요. 이번 활동은 거의 3주에 걸쳐서 진행했죠. 그러다보니 가온이랑 더 끈끈한 유대감이랄까, 그런 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가온, 가희 아버지 면담 2018.10.28)

예전에 한번 데리고 놀다가 나림이 팔이 빠진 경험이 있어서 제가 이후에는 겁이 나서 잘 안 데리고 놀았어요. 나림이가 그런 이후로 저한테 잘 안 오고요 그런데 어린

이집 부모참여를 통해 배웠던 놀이로 함께 놀아주고 했더니 나림이도 좋아하고 그 이후로는 저를 잘 따르고 하니 저도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나림이 아버지 면담 2018.12,15)

아무래도 아이랑 나눌 수 있는 공감대가 한 가지라도 더 생겨서 좋았어요. 애기도 더 많이 하구요, 어린이집 부모참여에 갔었던 것이 좋았던지 잊어버리지 않고 TV에서 부모참여 하는 상황이 나오면 "아빠도 우리 어린이집에 왔었지" 하고 그때 상황을 빠짐없이 이야기를 해요. 요즘에는 엄마 없이도 저하고만 있어도 한 참 잘 놀아요. 예전에는 엄마 곁에 꼭 붙어서 잠시만 안보이면 울었던 세찬이 였어요.

(세찬, 성빈, 수빈 아버지 면담 2019.1,20)

아버지들은 부모참여를 통해 그동안의 아버지 역할을 되돌아보고 아버지 역할을 재정립 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영아 자녀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아버지들과의 면담을 통해 아버지들이 어린이집 부모참여를 통하여 양육자의 역할 수행과 함께 어린이집에서 배운 놀이를 자녀와 함께 하며 공감대와 친밀감을 형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배우자와 동반 양육자로서의 역할을 재인식하면서 가사와 육아도 공동으로 분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친밀한 가족 관계 강화

본 연구에 참여한 아버지들은 어린이집 부모참여를 경험하면서 가족관계가 더욱 친밀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고 하였다. 부모참여를 통해 아버지 스스로도 변화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아버지들의 변화는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배우자와 자녀들에게도 변화를 가져왔다고 하였다. 그동안 엄마에게 더 익숙했던 영아기 자녀들도 아버지와의 놀이 기회가 늘어나고 아버지와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아버지를 더욱 친밀하게 느끼게 되는 것 같다고 하였다. 또한 그동안 남편 대신 양육을 혼자 도맡아 육아로 인한 피로감과 남편에 대한 서운함을 여겼던 배우자들도 남편의 변화와 노력을 격려해 주고 자녀 양육에 있어 남편을 동반 양육자로 인정하는 변화를 보였다고 하였다.

가온이는 제가 회사에서 돌아오거나 아니면 휴일에도 아침에 일어나면 딸기 먼저 보러 가자고 합니다. 물도 주면서 “많이 먹어라 딸기야” 해요. 저만 보면 딸기 보러 데리고 가는 것을 보니 재미있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했어요. 마지막 미션이 딸기가 열린 후 아빠랑 맛있게 먹는 것을 어린이집에 사진을 찍어서 보내야 하는데 먹으면 안 된다고 울더라고요. 그 이후부터는 마트에서 딸기나 과일들을 보면 가온이가 계속 저와 함께 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좋아해요. 가온이가 저와 딸기를 키웠던 것이 참 즐거웠나 봅니다.

(가온, 가희 아버지 면담 2018.11.10)

도담이가 어린이집 행사가 있으면, 당연하게 “아빠 올 거지?” 며 기대를 하는 거 같아요. 부모참여에 다녀온 이후에 도담이한테 가끔 아빠가 가서 좋았냐고 물어보면 너무 좋았다고 기분 좋아하고요. 예전에 어린이집에 갔었던 일까지 기억하면서 이야기 해요. 그 전에는 놀이를 해도 꼭 엄마 앞에서만 가서 놀던 애가 그 이후로는 제가 놀자고 하면 막 달려와요.

(도담, 다희 아버지 면담 2018.12.15)

제가 좀 적극적으로 변해서 그런 건지 라울이나 라미나 요즘은 책도 저한테 읽어 달라고 하고 놀이도 하자고 하고 많이 달라진 게 보여요. 큰 딸애는 자기랑 언제 요리할거냐면서 엄마한테 아빠랑 요리 하고 싶다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할 줄 아는 게 없긴 하지만 애들이 원하니까 인터넷보고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쉬운 주먹밥을 휴일에 아이들이랑 집에서 만들어서 먹어 보았더니 라울이가 어린이집에 가서 선생님께 자랑까지 했어요.

(라울, 라미 아버지 면담 2019.01.19)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면 우리 세찬이가 작은 축구공을 저한테 가져와서 놀아달라고 해요. 현관에서 아직 신발도 벗지도 않았는데, 예전에는 와서 한번 안기고 그냥 엄마한테 또 쪼르르 갔는데 지난번 부모참여에서 아이들이랑 놀아주는 법을 배우고, 집에서 몇 번 놀아주니까 기억하는지 퇴근만 하면 공놀이 하자고 해요 요즘에는 거의 잘 때 까지 제 옆에 붙어있어요.

(세찬, 성빈, 수빈 아버지 면담 2019.01.26)

위의 사례처럼 그동안 자녀양육에 있어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역할이 컸으며 자녀들은 엄마와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엄마들과의 놀이에 더 익숙해져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엄마와의 관계에 익숙했던 영아들이 아버지들의 적극적인 놀이참여와 애정표현을 경험하면서 아빠와의 놀이를 기대하고 즐거워하며 아빠에게 애착을 보이는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아버지들의 변화가 자녀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회사에 다니는 바쁜 아버지가 아닌 놀이 상대자인 즐거운 아버지로 인식하게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아버지들은 부모참여를 통해 적극적인 양육자 역할을 수행하려고 노력하면서 육아로 지친 배우자를 위하여 자녀 양육은 물론 가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배우자를 돕는다고 하였다.

예전에는 제가 아이를 좀 훈육하는 차원에서 혼을 내면 아내가 옆에서 아이를 혼낸다고 저에게 화를 내고 해서 제 위엄이 안서고 그랬어요.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배우자와도 갈등도 있었고요. 어린이집 부모교육에 몇 번 같이 참여도 하고 교육에 관련된 동영상도 같이 보고 했었어요. 아이와도 제가 적극적으로 놀이해주고. 처음에는 아내가 '며칠이나 하려나' 했다고 합니다. 요즘은 아내가 제 말에 대해서 인정도 해주고 '아빠 말 들어야지' 하면서 아이한테 이야기 하는 모습을 보면 가장으로서 위신도 서고 그렇죠.

(도담, 다희 아버지 면담 2018.12.15)

저희는 맞벌이거든요. 둘 다 집에 돌아와서 제가 바다랑 별이랑 많이 놀아주고 집안일도 같이 하다 보니 아내도 저를 이해하고 배려 해주는 것 같아요. 서로 상대적 이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서로 아이들에 대해서 시간이 날 때 마다 대화도 많이 해요. 아무래도 아내가 힘들면 집안에 좀 긴장감이 돌죠. 지금은 서로 양보해요. 아무튼 가화만사성이 맞는 거 같습니다.

(바다 별이 아버지 면담 2019.01.26)

아들 셋을 키우다 보니 세찬이 엄마가 아무래도 늘 피곤해 있죠. 저도 야근이 잦은 편이어서 가급적 많이 도와주려고 하지만 저도 피곤하고 지치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퇴근하고 집에 가면 아내도 신경이 날카로워 있어서 애들한테. 짜증도 많이 내고 그러죠. 남자애들이라 많이 활동적인 편이거든요. 제가 아이들을 많이 데리고 놀고 집안일도 같이 하려고 노력해요. 아내에게 그래도 제가 조금은 힘이 되나 봐요. 예전에 비해 화도 덜 내고 무엇보다 덜 지쳐하고 그 만큼 집안에 생기가 도는 거 같습니다.

(세찬, 성빈, 수빈 아버지 면담 2019.01.20)

아버지들은 배우자들이 남편들의 이러한 변화와 노력을 지켜보면서 남편인 자신들에게 의지하고 자녀에 대하여 동반 양육자로 인정하면서 예전과는 달리 자녀문제에 대해 자주 의논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러한 배우자들의 변화는 그동안 남편 대신 혼자서 양육과 가사를 떠맡아 오면서 육아스트레스로 몸도 마음도 지친 배우자들이 남편들에게 위로와 공감을 받으면서 갈등이 해소되어지는 변화과정으로 배우자와 남편은 부모로서 서로의 고단함을 이해하고 격려하는 과정으로 보여졌다.

3) 어린이집에 대한 이해 증진

본 연구에 참여한 아버지들은 어린이집 부모참여를 통하여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의 전반적인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와 함께 보육교사의 전문성과 원장의 교육철학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자녀교육에 도움을 주는 동반자적 입장으로 어린이집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우리 나림이가 어린이집에 처음 보낼 때 많이 울어서 걱정 했는데 지금은 어린이집을 좋아하고 지난번 선생님 뵙고 상담하고 나니 더 믿음도 갔어요. 요즘 뉴스에 아동학대 사건이 너무 많이 나와서 사실 불안하긴 했어요. 어린이집에 CCTV나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나림이 엄마랑 그런 뉴스를 접할 때 마다 '나림이 선생님도 혹시 그런 것은 아닐까?' 하고 애 엄마랑 이야기 할 때도 있죠. 그렇지만 어린이집에 부모참여를 가서 선생님과 상담해 보면서 느낌이 오더라고요. 특히 아이가 선생님을 너무 좋아해요. 지금까지의 선생님 모습을 보면 신뢰가 갑니다.

(나림이 아버지 면담 2018.12.15)

연말에 어린이집에서 진급신청서 올 때 유치원에 간다고 까지 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그 어린이집에서 아빠산타로 부모참여를 하게 됐어요. 어린이집에서 준비한 과정들이 제가 볼 때는 정성이 참 많이 느껴졌어요. 그런걸 보면서 행사 참여 전에는 내년에는 어린이집을 옮기려고 했었는데 그 마음이 바뀌었죠. 선생님들이나 원장님이 아이들이나 아버지들 대하는 것이 참 따뜻했어요.

(라울, 라미 아버지 면담 2019.01.19)

어린이집에서 하는 부모참여는 참여 하면 할수록 어린이집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어린이집이라는 곳이 참 편안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방문할수록 신뢰가 생긴다고 해야겠죠. 부모참여를 하고나면 평상시 보다 선생님들과도 활동하면서 더 얘기도 많이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더 신뢰감도 생기고 더 친숙해지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바다 별이 아버지 면담 2019.01.26)

부모참여 후에는 아무래도 좀 더 편해져서 그런지 자주 어린이집에 가고 싶고 우리 아이에 대해서 선생님이나 원장선생님들께 사소한 거라도 궁금하면 편안하게 물어보게 됩니다. 요즘 직접가지 않아도 모바일 알림장에 저도 등록되어 있어서 선생님한테 물어 봐요. 선생님이 내 아이를 잘 알고 계시니까 우리 아이를 잘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고 생각해요.

(여름, 우슬 아버지 면담 2019.01.20)

위의 사례처럼 아버지들은 어린이집의 부모참여를 경험하면서 어린이집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고 하였다. 아버지들은 어린이집 선생님을 다소 어렵게 느꼈지만 부모참여 이후 선생님들에게 자녀문제를 상의할 수 있을 정도로 편안함을 느꼈으며 선생님을 영아교육 전문가로서 인정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어린이집에서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며 보육교사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처럼 아버지들은 어머니들에 비해 어린이집에 방문 할 기회가 적었지만 부모참여시간에 담임선생님과의 자녀상담을 통해 어린이집은 자녀양육에 있어 가정과 함께 하는 동반자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임을 인식하였고 교사의 전문성을 확인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신뢰감이 증진 되는 기회가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아버지들은 어린이집 부모참여를 통하여 그동안 자녀 양육에 관련한 모든 것을 어린이집에서 해주어야 하는 것으로 잘못 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야기 하였다.

교육을 받고 나서 가장 크게 느끼게 된 것은 부모가 해야 할일과 또 어린이집에서 할 일이 따로 있고, 특히 아빠로서 해야 할일은 따로 있다는 것도 배웠죠. 배우자도 저도 잘 모르고 우리 아기 어렸을 때부터 어린이집에서 다 해주셔서 사실 그렇게 원래 다 어린이집에서 해주시는 줄 알았습니다.

(가온, 가희 아버지 면담 2018.11.10)

저희 부부가 맞벌이다 보니까 아기 목욕도 원장님이 다 씻겨주시고 저희는 그냥 집에 데리고 와서 잠만 재우거든요. 그런데 교육을 받다보니 부모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고 스킨십도 중요한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어린이집은 부모역할을 보조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희가 너무 모든 것을 맡기는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 크더라고요.

(바다, 별이 아버지 면담 2019.01.26)

부모 에티켓 교육을 원장님이 다른 교육 전에 잠시 하셨는데요. 그동안 아침 일찍 출근하면서 자는 애들을 한명 씩 데리고 가서 선생님한테 아침밥 까지 부탁드린 적이 많아요. 그리고 어린이집 선생님이 아이 옷을 갈아 입혀 주지 않으면 애 엄마가 선생님께서 신경 안 써준다고 오히려 속상해 했거든요. 그동안 그런 역할을 어린이집에서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교육 내내 사실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라울, 라미 아버지 면담 2019.01.19)

이상에서처럼 영아기 아버지들은 어린이집 부모참여를 통해 어린이집은 자녀를 건강하게 키우기 위한 보조적인 기능을 하는 기관임을 인식하고 자녀의 건강하고 바른 성장을 위해서는 가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하였다.

3. 어린이집 부모참여에 대한 요구

본 연구에 참여한 아버지들은 부모참여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요구하고 하고 있었다. 아버지들의 어린이집 부모참여에 대한 요구는 아버지 강점을 반영한 부모참여, 시대 변화에 따른 형식의 변화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아버지 강점을 반영한 부모참여

본 연구에 참여한 아버지들은 자신들의 강점이 반영된 어린이집 부모참여가 실행되기를 희망하였다. 아버지들은 남성인 아버지들도 잘 할 수 있는 교육내용으로 구성 된 어린이집 부모참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었으며, 이와 함께 아버지들의 개별적인 특기를 살릴 수 있는 내용과 재능기부형식으로 부모참여가 이루어지기를 요구하였다.

아버지들이 잘하는 것으로 재능 기부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들도 각자 자신들이 아버지라는 위치를 떠나서 각자의 재능이 있잖아요. 저희 어린 시절에 스승의 날 어머니들이 학교에 오셔서 재미있는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했었죠. 그런 방식의 1일 선생님 같은 것도 좋은 거 같아요.

(가온, 가희 아버지 면담 2018.11.10)

요즘 드론 같은 것은 사실 성인남성들이 좋아하거든요. 좀 넓은 공간이 있다면 그런 것도 가지고 가서 아이들이랑 한번 날려보면서 놀이 하고 싶어요. 아이들이 재미있고 좋아할 거 같아요. 그런 것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면 아버지들 관심도 높아지고 호응도 좋아질 것 같습니다.

(도담, 다희 아버지 면담 2018.12.15)

아빠들은 대체로 승부욕이 있어요. 아이들도 아빠들이랑 놀이를 통하여 많이 배우기 때문에 아빠들의 승부욕과 아이들의 놀이를 이용한 게임이나 신체활동을 주제로 하면 재미있고 아빠들도 더 많이 오겠죠.

(바다, 별이 아버지 면담 2019.01.26)

남성성에 맞는 주제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성역할에 대해 제가 선을 긋는 거 같지만 엄마들한테도 와서 나무 심어달라고 하거나 어린이집 외벽에

페인트칠을 도와 달라고 하면 힘들어 하는 것과 비슷하죠. 부모이기 전에 생물학적인 남성이어서 아버지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어린이집 측에서 더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세찬, 성빈, 수빈 아버지 면담 2019.01.20)

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아버지들은 남성적인 활동과 아버지들의 재능을 살릴 수 있는 어린이집 부모참여를 희망하였다. 아버지들은 어린이집의 부모참여에서 율동시연이나 인형 만들기, 손유희 배우기 등의 내용이 참여하는 과정에서 어려웠다고 이야기하며 어린이집 부모참여에 아버지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아버지들이 가진 강점이나 재능기부 형식의 부모참여를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아버지들은 또한 아래의 사례에서처럼 어린이집 부모참여에 특색 있는 아버지들의 직업을 소개하거나 아버지 직업을 탐방 하는 부모참여를 통하여 아버지들의 강점을 반영하고 싶어 하였다.

제가 경찰이라서 그런지 아이들은 경찰아저씨를 무서워하면서도 좋아하잖아요. 아버지들의 직업적 특색을 이용한 부모참여도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특색 있는 직업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부모참여에 그런 이색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 분야에 있는 아버지들을 어린이집에서 초대해서 이야기를 듣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미애, 미현 아버지 면담 2019.01.19)

요즘은 어렸을 때부터 직업이나 적성 테스트에도 부모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어린이집만 해도 소방관, 동물병원 의사도 있고 다양한 직업을 갖은 아버지가 있더라고요. 어린이집에서 아버지들의 직업을 미리 파악해서 아버지들 재원으로 직업체험을 몇 회기로 진행 하면 더 의미 있고 애들도 좋아할 것 같습니다. 물론 아버지들도 자신들의 직업이니 더욱 보람 있어 하겠죠.

(라울, 라미 아버지 면담 2019.01.19)

이처럼 아버지들은 어린이집에서 아버지들의 다양한 취미나 직업군을 사전에 미리 파악하고 비슷한 직업군과 취미를 가진 아버지를 분류하는 작업을 거쳐 분기별로 행사를 진행하면 서로 관심과 취미가 맞는 아버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2) 시대 변화에 따른 형식의 변화

본 연구에 참여한 아버지들은 보다 효율적인 어린이집 부모참여를 위하여 모바일을 이용한 참여나 소모임 형식의 아버지 참여 등 기존의 형식에서 벗어나 시대의 변화에 따른 형식의 부모참여가 이루어지는 요구하였으며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모참여가 아닌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모참여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하였다.

그냥 이렇게 모여서 하는 거 보다 바쁜 아버지들을 위해서 스마트 폰이나 어플 같은 거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런 어플을 활용하면 좋을 거 같아요. 그렇게 하면 지금 보다 더 많은 아버지들도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담, 도희 아버지 면담 2018.12.15)

저는 아이들 교육 강의를 인터넷에서 찾아서 오디오로 듣습니다. 어린이집에서도 부모교육 내용을 찾아서 매주 주제별로 스마트 알람장으로 올려주시거나 부모님들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아버지들은 좋아할 것 같아요. 남자는 모르는 사람들과는 잘 못 어울려요. 그래서 아마도 아버지들은 모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여름, 우슬 아버지 면담 2019.01.20)

위의 사례처럼 아버지들은 어린이집 부모참여에 영아 아버지들의 참여를 높이고 더 효율적인 방안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부모참여 방식을 요구하였

다. 아버지들은 어린이집에 모여서 이루어지는 강의나 세미나 형식의 교육 보다는 출퇴근 시간을 이용하여 부모참여를 할 수 있도록 스마트 알림장이 활성화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이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부모참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스마트폰 활용에 익숙한 아버지들이 자녀육아와 관련된 정보를 빠르게 얻고자 하는 요구로 이해할 수 있었다.

아버지들은 많은 학부모가 참여할 수 없는 대그룹 강의나 바쁜 시간으로 자주 참석할 수 없는 세미나식 교육 보다는 자녀양육에 대한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자율적인 아버지들의 소모임이 이루어지길 희망하였다.

자율적 이었으면 좋겠어요. 시간의 제한이나 장소의 제한들로 인해서 사실 참여 못할 때가 종종 있어요. 특히 선착순 몇명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이라는 건 누구나 쉽게 접해야 하는데 시간, 장소, 거기에 선착순으로 하면 너무 제한적이에요. 시간되는 아버지들이라도 자율적으로 모임이 되면 좋죠.

(나림 아버지 면담 2018.12.15)

좀 더 많은 아버지들이 참여하기 위하여 아버지들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서 아이들 양육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대화를 하다보면 친해질 수 있고 그러다보면 부모참여에 더 많이 참여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린이집에서도 함께 참여하면 더욱 좋고요.

(라울, 라미 아버지 면담 2019.01.19)

첫 번째는 시간이 허락해야겠죠. 아버지들이 대부분 일을 하니까요. 그 적절한 시간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시간이 안 되면 소그룹 형식으로 시간 되는 아버지들끼리 모임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담임선생님 위주로 모임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일 것 같아요. 선생님하고도 좀 친해질 수 있는 기회고 내 아이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알 수 있잖아요.

(세찬, 성빈, 수빈 아버지 면담 2019.01.20)

위의 사례처럼 아버지들은 종전의 어린이집 부모참여수업에서는 같은 반 학부모와 교사와의 친분이 없어 참여 내내 서먹했던 경험을 이야기 하며 친분을 쌓을 수 있는 소모임 형식의 강의가 교육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아버지들은 담임교사가 함께 하는 소모임이 형성된다면 자녀의 어린이집 생활과 교육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상담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아버지들은 대그룹 형식의 교육보다는 소수 인원으로 모이는 소모임으로 이루어지는 어린이집 부모참여가 더 참여율이 높고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렇듯 아버지들은 어린이집의 부모참여운영 방식에 대한 요구로 시·공간간의 제한 없이 부모참여를 할 수 있는 모바일과 단체메신저 등을 활용하는 방식이나 소수 인원을 중심으로 하는 소모임 형태의 부모참여 방식을 원하였다. 이러한 아버지들의 요구는 모바일과 인터넷에 익숙한 모바일세대의 아버지들의 요구로 시대의 변화에 따른 아버지들의 부모참여 방식의 변화로 이해된다.

또한 아버지들은 어린이집 부모참여 내용적인 면에서 자녀양육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내용으로 구성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집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원합니다. 우리 미애는 인형놀이를 좋아하는데 이런 놀이를 해줄 때 놀이를 좀 더 재밌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제가 아무래도 남자이다 보니 미애가 어떤 놀이를 좋아하는지 어떻게 놀아줘야 하는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자녀들 성별에 따른 놀이 방법이나 종류를 알고 싶어요.

(미애, 미현 아버지 면담 2019.01.19)

아이들이 왜 울고 떼를 부리는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일 어렵거든요. 맘매를 할 수도 없잖아요. 너무 이론적인 교육 말고 실제적인 자녀교육에 유용

한 정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또 아이들의 창의력을 키워줄 수 있는 가정에서의 아버지들의 행동이나 지침도 알고 싶어요.

(바다, 별이 아버지 면담 2019.01.26)

아버지들은 사실 안 데리고 노는 게 아니고 못 데리고 논다는 표현이 맞아요. 저희 어렸을 때 우리 끼리 놀았죠, 그러다 보니 애들과 어떻게 놀아야 교육적이 될까도 고민되고. 벌써부터 게임이나 스마트폰을 보려고 해서 그런 부분을 부모가 얼마나 허용해야 하는지도 고민 되서 실제적인 자녀 양육과 지식에 대한 정보를 원합니다.

(세찬, 성빈, 수빈 아버지 면담 2019.01.20)

아버지들은 지금까지 참여 한 어린이집의 부모참여는 주로 이론적인 부분이 많았다고 지적하면서 실제 가정에서 자녀들과의 놀이방법이나 양육지식에 대한 정보를 희망하고 있었다. 영아기 아버지들은 자녀가 떼를 부릴 경우 아버지가 어떻게 개입을 하고 어디까지 허용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부모참여 교육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요구하고 있어 아버지들은 부모참여내용이 피상적인 내용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이며 연령별 특성에 맞는 내용으로 구성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이처럼 아버지들은 바쁜 일상으로 부모참여 방식에 모바일을 활용하는 것을 희망하였으며 대그룹 보다는 소그룹 모임을 활성화 시켜 자녀양육에 대한 정보를 나누면서 이론적 교육보다 자녀에 대한 실질적인 양육정보와 놀이방법등의 교육내용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IV. 논의 및 결론

1. 논의

본 연구에서는 영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어린이집 부모참여 동기 및 어린이집 부모참여를 통한 변화를 살펴보고 어린이집 부모참여 활성화를 위한 아버지들의 요구는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연구 문제에 따라 세 가지로 요약하고 논의 하면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집 부모참여 동기

본 연구에 참여한 아버지들의 어린이집 부모참여 동기는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은 아버지의 소망, 자녀양육 어려움을 위한 해소 방안, 자녀교육관 차이로 인한 부부갈등 해소 방안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아버지들은 자녀에게 보다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어린이집 부모참여를 하게 된다고 하였다. 아버지들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시간을 내어 자녀의 어린이집에 참여하게 된다고 하였으며, 이는 최근 마스크의 영향이나 사회적인 기대에 부응하려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여 졌다. 특히 아버지들이 ‘자신의 아버지’와는 다른 아버지로 자녀에게 기억되기를 소망하였으며, 아버지들이 생각하는 좋은 아버지의 이미지는 친근하고, 다정하며,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아버지를 편안하게 생각하는 존재로 기억 되는 것이라는 결과는 최소민(2018)의 연구결과에서도 입증되었다. 이처럼 아버지들이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은 소망으로 어린이집 부모참여를 하게 된다는 본 연구 결과는 김선미 외(2017)의 연구에서 영유아 자녀를 둔 아버지들이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어 지역아버지 모임에 참여하게 된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그러나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은 소망으로 부모참여를 하게 된다는 아버지들의 소망 저변에는 사회와 타인의 기대 등이 아버지들에게 부담감과 중압감으로 작용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좋은 아버지가 되는 법을 모르는 아버지들은 이상적인 아버지상과 현실적 자아상의 괴리를 경험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그 간극을 최소로 줄여줄 수 있는 어린이집 부모참여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좋은 아버지의 역할을 피상적으로 소개하기 보다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해볼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소개하고 함께 고민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제공함으로써 바람직한 아버지 역할의 기준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참여한 아버지들은 자녀양육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으며, 이러한 어려움의 해결 방안으로 어린이집 부모참여를 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버지들은 부족한 자녀양육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습득하고자 어린이집의 다양한 교육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기 아버지들이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어린이집 부모참여를 하게 된다는 본 연구결과는 아버지들이 자녀를 돌보는 것을 가장 어렵게 인식(권영임, 2012)하며, 자녀와의 놀이방법과 교육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느낀다(강경옥, 2002; 손순복, 2016; 신성숙, 2017; 허평순, 2014)는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렇듯 영아기 아버지들이 자녀 돌봄에 대한 관심과 열의를 보이지만 양육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이

해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어린이집에서는 다양한 자녀 돌봄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여 아버지들도 자녀 양육에 흥미를 가지고 공동 양육자로서 자신 있게 부모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 참여한 아버지들이 어린이집 부모참여에 가게 된 동기는 자녀교육관 차이로 인한 부부갈등 해소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권유로 어린이집 부모참여를 하게 된 아버지들은 교육적 목적 보다는 ‘참여’에 의미를 두었다. 아버지들은 배우자가 신청한 어린이집 부모참여에 참석하지 않았을 경우 배우자와의 관계가 불편해지는 것을 우려하여 배우자의 참여 권유를 수용하고 자녀교육에 대한 부부간의 이견을 줄이기 위해 부모참여를 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처럼 아버지들은 배우자의 권유에 의하여 자녀교육에 대한 배우자와의 갈등을 해소 하고자 부모참여를 하게 되었지만 어린이집 부모참여 과정을 경험 하면서 자신의 아버지 역할과 자신의 자녀교육관에 대해 반성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도 하였다. 아버지들이 배우자의 권유로 부모참여를 하게 된다는 본 연구 결과는 배우자의 권유로 어쩔 수 없이 아버지 대상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는 이현아 외(2014)와 최소민(2018)의 연구결과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이처럼 배우자의 권유로 아버지들이 역할을 수동적으로 수행 할 경우 양육에 대한 책임의식이 적고 부모로서 의사결정을 내릴 기회가 많지 않아 자녀가 성장할수록 아버지 역할의 한계에 부딪힌다(장재홍 외, 2000). 따라서 아버지들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아버지 역할을 수행하면서 스스로 부모로서 자녀양육에 대한 결정에 책임을 지며 아버지로서 적합하게 역할 수행을 하는지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아버지들의 부모참여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이끌고 사회생활로 바쁜 아버지들이 보다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는 시대에 맞는 부모참여 방식과 개별적 주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아버지들의 양육 역할에 대한 배우자들의 기대치가 너무

높은 것도 아버지들의 부모 효능감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에서 부부가 함께 하는 교육을 마련하여 배우자가 양육행동을 시범을 보이고 남편의 양육행동을 격려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배우자의 격려와 모델링은 아버지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과 자신감을 되찾아 줌으로써 자녀 양육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2) 어린이집 부모참여를 통한 변화

영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의 부모참여를 통한 변화는 아버지 역할의 재정립, 친밀한 가족관계 강화. 어린이집에 대한 이해 증진의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아버지들은 어린이집 부모참여를 통하여 아버지 역할을 재정립 해 볼 기회가 되었다고 하였다. 그동안 생계 부양자로서의 아버지 역할에만 충실했던 아버지들은 영아기 자녀에게 아버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버지 교육을 통하여 배우면서 아버지 자신이 변화되었다고 하였다. 아버지들은 그동안 가사와 자녀를 양육하는 역할에 있어서는 배우자의 보조적인 역할로만 인식하던 자신을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이야기하였다. 이는 과거와는 달리 현대의 아버지에게는 자녀와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 새로운 아버지 역할이 요구된다는 김정원 외(2007)연구결과와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된다. 또한 아버지들은 부모참여 이후에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양육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참여수업이 아버지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 변화와 자녀 돌봄 역할 수행간의 차이를 좁힐 수 있는 효과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권혜진(2013)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아버지들이 육아에 참여하는 경우 영아기 자녀에게 다면적

인 부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권혜진, 2010). 따라서 어린이 집에서는 아버지와 영아 자녀 간 친밀감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여야 할 것이며 아버지들이 자신의 역할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적극적인 아버지 역할에 대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영아 자녀를 둔 아버지교육이 주기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본 연구에 참여한 아버지들은 어린이집 부모참여를 통해 가족 관계가 더욱 친밀하게 강화되었다고 하였다. 특히 아버지들은 자녀와 함께 한 참여수업을 통하여 자녀에 대하여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는 아버지들의 양육참여가 아버지-자녀간의 긍정적이고 정서적인 유대감을 형성시키고 자녀의 초기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배지희, 김신영, 이수영, 2016)는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아버지들은 자녀와 함께 하는 부모참여를 통하여 영아 자녀와 생각을 공유하고 의사소통하려고 노력하면서 자녀와의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고, 다양한 놀이 활동 속에서 신체적 접촉과 정서적인 애정표현을 자주하게 되면서 더욱 친밀한 관계가 증대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허평순(2014)의 연구에서 유아교육기관의 참여프로그램을 통해 자녀와의 대화 및 애정 표현과 같은 아버지들의 양육태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바쁜 사회생활로 영아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엄마들보다 상대적으로 적어 자녀들과 관계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아버지를 위하여 영아 자녀와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놀이방식의 교육과 자녀와의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는 부모참여 프로그램이 기회가 자주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아버지들은 자녀 뿐 아니라 배우자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아버지들은 그동안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을 배우자

에게 전적으로 맡기며 양육의 책임에 대해 소홀히 여긴 것을 반성하며 배우자에게 미안한 심경을 느끼고 있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아버지들 중에는 가부장적인 의식구조의 틀을 완전히 깨지 못하여 자녀양육을 아직도 어머니들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아버지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인식이 부부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점점 서먹해 지는 배우자와의 관계를 부모참여를 통하여 개선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아버지들의 모습은 부모교육을 통해 부부 갈등을 해결하고 부부관계를 개선하고자 한다는 연구(김선미 외, 2014; 이서연, 2017; 이현아, 2017)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높을수록 부부갈등이 감소되며, 감소된 부부갈등으로 인하여 어머니의 육아스트레스는 감소하게 된다(박성덕 외, 2016; 정미라, 2013). 이처럼 본 연구의 아버지들도 부모참여를 통하여 자녀양육이 부부 공동의 책임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으며 그 동안 배우자 혼자 겪었던 부모역할에 대한 어려움을 이해하여 가정에서의 자녀 돌봄과 가사를 함께 하고 배우자에게 휴식시간을 제공하는 등 육아에 지친 배우자를 격려하고 지지하는 노력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배우자와의 관계가 개선되었다는 점에서 어린이집 부모참여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김유나 외 (2016)의 연구에서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부부갈등이 낮은 부부에게는 양육스트레스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 오지만 부부갈등이 이미 심화된 부부의 경우에는 부부갈등을 낮추는 역할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한 것은 시사 하는 바가 크다. 즉, 어린이집에서는 육아스트레스로 인한 부부 갈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부부 갈등을 해소하고 가족 간의 친밀한 관계가 유지 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어린이집 부모참여가 자녀와 부모 간의 관계 뿐 아니라 영아 자녀를 둔 부부의 양육과 가사 역할 분담에 대한 내용 등을 포함하여 건강하고 바람직한 부부관계 지원방안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 참여 아버지들에게 어린이집 부모참여는 자녀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기회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들은 평소에 자녀의 어린이집 방문을 어렵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린이집 부모참여는 어린이집을 공식적으로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되므로 영아기 자녀가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교실이나 환경의 청결한 위생 상태를 자세히 확인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자녀의 담임교사와의 대면상담을 통하여 영아교육의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확인하고 교사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을 뿐 아니라 아이들을 사랑하는 교사의 인성을 살펴 볼 수 있는 기회도 되었다고 하였다. 이렇듯 아버지들은 부모참여를 통하여 어린이집 영아 보육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 담임교사의 전문성과 어린이집의 위생적인 환경을 확인하게 되면서 자녀의 어린이집에 대한 이해가 증진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아버지들은 부모참여를 정성스럽게 준비한 교사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기도 하였으며, 대면상담과정에서 자신의 자녀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고 있는 담임교사와 원장에게 신뢰가 깊어져 영아기 자녀를 더 믿고 보낼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렇듯 어린이집 부모참여는 아버지들에게 어린이집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신뢰감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데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는 어린이집 부모참여가 교사와 어린이집의 신뢰증진의 중요한 계기가 되며, 아버지들이 참여 수업 이후 어린이집 교육에 만족하게 된다고 보고한 장문규(2005), 문영보 외(2009), 박세진(2010), 배지희 외(2016)의 연구결과와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아버지들은 육아와 교육에 대한 모든 부분을 어린이집 교사와 어린이집에서 대신 해 주어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였다. 하지만 어린이집의 부모참여를 통하여 부모가 해야 될 역할과 어린이집에서의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낸 후 이루어지는 교육과 문제행동에 대해 교사가 모든 것을 대신 해줄 것을 기대하는 부모의 인식과 태도로 교사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서운정 이대균, 2011)고 볼 때, 본 연구 에서 아버지들의 어린이집에 대한 인식 변화는 어린이집 교사의 스트레스와 부담감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어린이집 부모참여를 통한 아버지들의 어린이집에 대한 이해증진은 보다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3) 어린이집 부모참여에 대한 요구

본 연구에 참여한 아버지들은 어린이집 부모참여가 활성화되기 위하여 아버지들의 강점을 반영한 부모참여, 시대 변화에 따른 형식의 변화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아버지들은 자신들의 강점이 반영된 부모참여가 실행되기를 희망하였다. 아버지들은 어린이집 측에서 일방적으로 준비된 프로그램에 대하여 아쉬움을 표현하면서 아버지 개개인이 지니고 있는 강점을 살린 프로그램이 계획된다면 지금 보다 더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였다. 아버지들은 자신들의 직업을 이용한 재능기부 부모참여나 신체를 이용한 활동성 있는 프로그램을 좋아하고 자신감을 보였는데 이는 아버지들이 아버지 참여에서 몸을 움직이면서 활동하는 것에 만족한다는(배지희, 김신영, 이수영, 2016; 장문규, 2005)연구결과와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아버지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지금까지 어린이집에서 행해오는 대집단 형식의 강의를 벗어나 아버지들의 강점을 반영한 부모참여 프로그램이 실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 참여한 아버지들은 시대의 변화에 적합하게 부모참여 형식이 변화되어 실행되기를 요구하였다. 아버지들은 평소 모바일이나 SNS 메시지를 소통 하는 것에 익숙한 젊은 아버지들로 어린이집에서 지금까지 실시해오던 강의형식의 교육보다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부모참여 방식을 희망 하였다. 아버지들의 모바일을 이용한 부모참여 방식의 요구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갈등을 경험하면서 직장에서도 모바일을 기반으로 하는 부모참여를 통하여 영아 자녀의 발달과정과 양육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여 아버지 역할을 충실하게 해내고 싶은 아버지들의 염원으로 이해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아버지 교육이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 인식과 양육수행에 기여한다는 이서연(2018)의 연구결과에서도 입증되었다. 더불어 아버지들은 소그룹 모임과 SNS를 기반으로 하는 대화방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싶어 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아버지들의 요구는 아버지들이 사회생활로 바쁜 일상에서도 아버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린이집에서는 보다 많은 아버지들이 어린이집 부모참여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아버지들의 개별적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형식의 부모참여방식을 계획하고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2.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영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의 어린이집 부모참여 동기 및 어린이집 부모참여를 통한 변화, 어린이집 부모참여에 대한 요구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의 어린이집 부모참여 동기는 부모참여를 통하여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은 아버지들의 소망이었다. 아버지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아버지상은 자녀에게 친구처럼 편안하고 다정한 아버지였으며, 자녀를 이해하고 자녀가 성장 한 후에도 좋은 아버지로 기억되고 싶어했다. 또한 양육지식이 부족한 아버지들은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느끼며,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서 실시되고 있는 부모참여를 통해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또한 부모참여를 통하여 자녀교육에 대한 이견을 줄여 부부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도 부모참여에 참석하게 된다고 하였다.

둘째, 영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의 어린이집 부모참여를 통한 변화는 아버지 역할의 재정립과 가족 간의 관계 강화, 어린이집에 대한 이해 증진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생계부양자로서 아버지 역할에만 충실했던 아버지들은 어린이집의 부모참여를 통하여 영아기 자녀에게 양육자로서의 아버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교육을 통하여 배우면서 자신의 아버지 역할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었다고 하였다. 아버지들의 적극적이고 동반자적인 양육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차 가족들도 변화를 보였다고 하였다. 아버지들은 영아 자녀와의 적극적인 놀이를 통하여 친밀감과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그동안 육아와 가사를 배우자에게 모두 전담 한 스스로를 반성하며 역할의 공동 분담과 배우자의 노고를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배우자와의 관계도 개선되

는 등 친밀한 가족관계가 강화되었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들은 부모참여를 통하여 어린이집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아버지들은 자녀의 어린이집 생활 및 영아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뿐 아니라 영아 전문가로서 담임교사에 대한 신뢰감이 상승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어린이집을 더욱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하였다.

셋째, 영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은 어린이집 부모참여 계획 시 자신들의 강점이 고려된 프로그램과 시대의 변화에 따른 참여방식의 변화를 요구 하였다. 즉 아버지들은 부모참여에서 신체활동을 이용하여 자녀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선호하거나 자신들의 다양한 직업으로 재능기부식의 부모참여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버지들은 다양한 부모참여 방식으로 기존의 강연이나 세미나 위주의 모임 형식에서 벗어나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모바일 앱을 이용한 부모참여방식과 SNS 대화방을 통한 아버지 역할에 대한 양육지식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요구하며 시대의 변화에 따른 참여방식을 요구 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영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어린이집 부모참여 경험을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아버지들의 어린이집 부모참여과정에서 아버지의 효율적인 참여와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에 도움이 되는데 그 의미를 두었다. 그러나 서울에 위치한 어린이집의 영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지역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점과 양 부모 가정의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여 부 가정과, 재혼가족, 다문화 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하지 않은 면담이라는 데 연구의 한계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토대로 후속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의 가정, 민간, 국. 공립. 법인, 직장어린이

집의 영아반에 재원중인 자녀 둔 아버지로 3회 이상 부모참여 경험이 있는 영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연구 참여자 선정 과정에서 만0세반 영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은 3회 이상 부모참여를 경험한 아버지들을 찾을 수 없어 만1세와 만2세 아버지를 대상으로 면담이 진행되었다. 따라서 영아기 특성을 반영한 다각적인 부모참여 연구를 위해 후속 연구에서는 만0세의 아버지들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둘째, 본 연구는 서울 소재 어린이집의 영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한계가 있어,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의 어린이집을 포함한 아버지들의 요구조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셋째, 본 연구는 양부모 가정의 영아기 아버지를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다양한 가족구조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최근 늘어가고 있는 맞벌이 가족 뿐 아니라 부 가정, 재혼가정, 다문화가족, 미혼 부 가정 등의 다양한 가족구조의 개별성을 이해하여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족 구조에 따른 영아기 아버지 역할과 아버지 참여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강경미, 구광현, 백경숙(2005). **아동발달**. 서울: 대왕사.
- 강경옥(2002). 영아기 부모참여에 대한 아버지의 요구 및 인식.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지원(2018).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정서 공감이 영아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곽금주, 성현란, 장유경, 심희옥, 이지연, 김수정, 배기조(2005). **한국영아발달연구**, 서울: 학지사.
- 권기남(2014). 아버지의 e-learning기반 부모교육 프로그램 참여가 유아의 행복감 및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회**, 23(4), 5-24.
- 권미경(2012). 도서대여를 통한 아버지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효과.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미경, 나유미, 이해정(2016). **부모교육**. 파주: 양성원.
- 권민균 외(2005). **아동발달**. 서울: 창지사.
- 권미선(2011).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유아 리더쉽과의 관계. 카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순임, 구수연(2014). 스마트폰을 활용한 영아기 아버지 교육이 아버지 부모 효능감 및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5(4), 519-545.
- 권영임(2012), 아버지의 아동기경험과 자녀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유아교육, 보육복지학회**, 16(2), 125-142.
- 권인옥, 안효진(2015). 영아를 둔 아버지들의 부모 효능감, 놀이 신념, 그리고 영아의 놀이성 간의 관계 연구, **열린부모교육연구**, 15(7),

65-184.

- 권태은(2007). 동화구연을 활용한 아버지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혜진(2010). 영유아기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아버지 역할만족도와 역할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자녀와의 친밀감의 매개효과 탐색, **한국보육학회지**, 10(4), 87-106.
- 권혜진(2013). 아버지교육 참여자 경험을 통해 살펴본 아버지교육의 의미, **한국보육지원학회지**, 9(5), 461-488.
- 김경선(2003). 어린이집의 부모교육 운영 실태와 원장의 부모교육에 대한 인식. 대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근규(2017). **부모참여개론**.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김기순(2002). 아버지의 양육 행동 및 놀이성과 유아의 놀이성과의 관계.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경, 나유미, 이해정(2016). **부모교육**. 파주: 양성원.
- 김민정(2005). 영아기 자녀에 대한 부모의 실제 양육행동과 이상적 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보람(2017). 육아종합지원센터 가정양육지원사업의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서울자치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미, 이승미, 구혜령(2017). 아버지자조모임 참여자의 경험과 기대: 건강 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버지모임’ 사업 참여자를 중심으로, **사회과학 논총**, 20(1), P163-187.
- 김성은(2017). 아버지교육 프로그램 연구동향 **열린부모교육연구**, 17(9), 75-100.
- 김수정(2002).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참여 프로그램의 실태와 연구도 조

- 사. 총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순옥, 이민아 (2006). 영아기의 아버지 역할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9(-), 15-27.
- 김영두, 이대균(2011). 초보 아버지들의 양육 특성과 아버지 됨의 변화과정. **어린이 문화교육 연구**, 12(1), 353-380.
- 김영천(2012). **질적연구방법론 I**.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 김유경(2010), 아버지 역할 지원 정책에 대한 기초연구 - 영유아기 아버지의 역할 수행과 인식을 중심으로 -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P.334.
- 김유나, 박애리(2016). 맞벌이 가구와 남성 홀벌이 가구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연구: 부부관계와 아버지 양육참여의 상호작용 효과 분석.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1(1), 51-76.
- 김유진(2003). 영아보육교사의 전문성 인식과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원.김유정 (2007). 영유아기 자녀를 둔 우리나라 아버지 관련 연구 경향 분석; 1980년대 이후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5(5), 25-38.
- 김정원, 임선영 (2007). 보육교사의 어머니 역할하기, **아동보육연구**, 3(1), 27-52.
- 김정원, 전선옥(2016). **영유아교육기관의 부모참여**. 서울: 창지사.
- 김정신(1999).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양육참여도에 따른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현 외(2008). **부모교육**. 파주 : 양서원.
- 김현정(2010). 영유아기 부모참여에 대한 참여 실태와 요구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지영(2016). 가정어린이집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태와 요구 및 활성화 방안.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병만(2013), 저출산 현상의 원인에 대한 개념구조와 정책적 검토. **대한정치학회보**, 13(10), 179-207.
- 노선혜(2017). 영유아부모관련 보육사업과 정보접근수단에 관한 인식 조사 : 유아보육기관 재원생 부모를 대상으로. 총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모용희(2014). 가정과 연계한 인성교육이 유아의 기본생활습관, 도덕적 판단력 및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성영(2007). 아버지의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인식,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영보,최복기(2009). 가족-보육시설 연계 활동에 대한 부모참여 실태분석. **한국보육학회지**. 9(2), 35-52.
- 문애현,조안나(2018). 어머니의 분리불안과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가 영아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23(4), 231-252.
- 박상영(2000). 유아교육과정에 따른 아버지교육 프로그램의 요구조사. 신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성덕,서연실(2016). 어머니가 인지한 아버지의 양육참여 및 부부갈등과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 사회적 지지의 조절된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36(2),193-212.
- 박수연(2012). 어린이집 교사의 임파워먼트 및 조직문화와 영유아 권리준중 보육과의 관계.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세연(2015). 아버지와 자녀의 여가 활동과 자녀 행복감의 관계-아버지와 자녀 친밀감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세진(2010).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아버지 참여에 대한 아버지의 인식, 세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충(1985). 유아교육기관의 부모참여 프로그램 효과에 관한 실험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유미(2008). 영아기 발달특성에 대한 보육교사의 지식과 교사의 상호작용 행동.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익새(2012). 부부공동 양육, 아버지 양육참여 및 육아의 정서조절 능력간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현주(2013). 스마트폰 이용자의 인스턴트 메신저 앱 이용동기와 수용 - ‘카카오톡’ 과 ‘카카오 스토리’ 이용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정보미디어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방한별(2007). 기혼남성의 양육태도와 양육스트레스에 따른 부모참여 요구도에 관한 연구. 유아기자녀를 둔 아버지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보건복지부 (2012).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 보건복지부 (2018).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 배지희, 김신영, 이수영 (2016).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아버지 참여에 대한 아버지들의 경험과 기대. **유아교육연구** 36(2), 271-294.
- 서윤정, 이대균(2011), 어린이집 교사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스트레스와 대처방법. **미래유아교육학회**, 18(4), 259-291.
- 손순복(2016). 영유아 아버지의 아버지 역할훈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3(3), 197-220.
- 송나래, 나종해(2017). 영아기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탐색. **한국보육지원학회**, 14(1), 187-202.
- 송지은(2017). 유아용 국내 창작 그림책에 나타난 아버지 역할 분석 연구.

-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성숙(2017). 영아기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부모참여 현황 및 요구도 조사. 총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영진,김창수(2019). **부모교육**. 서울:동문사.
- 양안나(2014), 영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양육형태에 따른 육아 경험 및 요구, 성신여자대학원 유아교육학과 석사논문.
- 여성신문(2011).아빠도 아기 키우는 기쁨 느낄래요, **여성신문**.2011,12,23.
- 오옥환(2017). **유아교육과 보육, 불평등의 묘판**. 서울: 교육과학사.
- 오한나 (2017). 영아기 첫 자녀를 둔 아버지, 어머니의 부모역할 인식 및 실천에 대한 비교 연구. **열린부모교육연구**. 17(9),143-170.
- 유아교육사전(2003).**유아교육사전(용어편)**. 서울: 서울한국사전연구사.
- 유안진,김연진((1997), **부모교육**. 서울: 동문사.
- 유효순,이원영 (2003). **부모교육**. 서울: 정민사.
- 윤영주(2014).놀이하는 아빠로서의 지나온 경험 탐색.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귀애,김영희(2016). 아버지의 원가족 부모와의 정서적 연결과 부부친밀감 및 역할수행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3(3),93-119.
- 이서연(2017).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영아기 아버지교육이 양육참여와 태도에 미치는 영향, 순천향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숙화,황성하,남미경(2010). 보육시설과 가정의 연계를 통한 감각활동이 영아의 신체발달과 영아-부모 상호작용에 미치는 효과. **한국보육지원학회**, 6(3), 103-125.
- 이순이(2003). 영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보상,대가,역할수행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영은(2013). 영아발달수준에 대한 부모의 지식인지도. 숭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환(2008). 자녀의 자녀양육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아동권리**, 12(2), 189-210.
- 이원영, 이태영, 강정원 (2008). **영유아 교사를 위한 부모교육**. 서울: 학지사.
- 이은희(2001),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맞벌이 남녀의 대처전략과 결혼만족도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45(5), 288-314.
- 이인정(2008). 유치원 부모교육에 대한 아버지의 경험실태 및 인식, 이화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인정(2014). 미취학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양육스트레스가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5(3), 127-149.
- 이정민(2018).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영아의 자기조절력에 미치는 영향과 놀이성.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현아, 박철, 김선미(2017). 지역사회 건강가정지원센터 아버지 대상 프로그램 참여경험과 요구분석. **한국자치행정학보**, 31(2), 319-348.
- 장문규(2005). 어린이집의 아버지참여프로그램에 대한 교사와 아버지의 인식 비교연구. 성균관대학교 보육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희일(2016). 인공지능 알파고 시대의 부모교육. **부모교육연구**, 12(1), 93-108.
- 장재홍, 김태성, 김현주, 이호준(2000). **부모교육프로그램 연구: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현황과 아버지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제언**.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정계숙외11인(2007). **부모교육**. 서울: 창지사.
- 정계환(2011). 영아기 부모참여의 현황 및 요구에 관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 비교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문자(1992). 유치원 교사의 어머니의 부모교육내용 요구조사. **유아교육 연구**, 12, 163-183.
- 정미라, 강수경, 김민정, 최혜정(2014). 12개월 영아의 기질,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 양육스트레스와 영아발달 간의 구조적 관계. **유아교육 연구**, 34(3), 333-354.
- 정보미(2013). 영아기 첫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부모교육 현황 및 요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경숙(2012). 농촌지역 국제결혼 다문화가족 아버지의 자녀교육역할에 대한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은영(2017). 영유아기 아버지의 상호작용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활동의 구성:TREASURE Talk 코칭모델의 활용.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하영(2012). 아버지의 양육경험과 심리적 안녕감이 자녀에 해한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소민(2018). Q방법론을 활용한 좋은 아버지가 되기 어려움 탐색.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천은영, 안라리, 이연희(2008). **영유아발달**. 서울: 동문사.
- 천은영(2015). **영아발달**. 서울: 동문사.
- 최은희(2006). 영아기 부모참여에 대한 요구조사.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2018). 청년사회. 경제실태조사 : 맞벌이여부,(2017~2018).
- 한국유아교육학회(1996). **유아교육사전**. 한국사전연구소.
- 한혜경(1995). 아버지의 일과 가족생활. 서울: 서울특별시 한국가족학 연구회.
- 한선화(2018).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보육만족도와 남편의 지지가 양

- 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총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영림(2006).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교육논총**. 26(1), 97-116
- 허평순(2014). 유아교육기관의 부모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아버지의 참여경험과 양육참여도와의 관계.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길희, 이해란, 왕영희, 정미자 (2016). **사회. 가족 변화에 따른 부모참여**. 서울: 창지사.
- Lamb, M. E. (1995). **아버지 역할과 아동발달**. 김광웅, 박성년 역.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Laura E, Berk, (2008). **아동발달**. 이종숙 외 4인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 Parke, R. D. (2005). **아버지만이 줄 수 있는 것이 따로 있다**. (김성봉 역). 서울: 샘터.

ABSTRACT

Exploration on the Experience of Fathers with Young Children Partaking in Parental Participation Class at Day Care Centers

Young- Hee, Oh
Department of Child Care and Education
Child Care and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Lifetime Welfare
Sungshin Women' 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look into the motivation of fathers with young children to partake in parental participation class at daycare centers and examine the experience of the parental participation class for fathers and the requirements of fathers for the parental participation class. To accomplish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the following research issues were established:

1. What motivates of infant's father to partake in parental participation class?

2. What changes through the parental participation class at daycare centers for infant father?

3. What are the requirements of the infant's fathers for parental participation class at daycare centers?

To explore various experiences of fathers with young children at daycare centers, we had in-depth interviews with 10 fathers as subjects of this study, who sent their children to daycare centers and had participated at least 3 times in 'parental participation class' of daycare centers located in Seoul, and collected the document materials related to the parental education of daycare centers.

The study was carried out from October 2018 to February 2019. The in-depth interview was conducted in two sessions, each lasting 60 minutes, for each subject. If additional data needed to be collected, phone calls and e-mails were used.

The in-depth interview consisted of semi-structured and open questions based on the questionnaires prepared by this researcher, addressing the issues such as the background for participation, understanding of fathers' roles and parental participation class at daycare centers, difficulties hindering the participation at daycare centers and concerned needs.

The collected data were photocopied, read repeatedly and categorized by this researcher and analyzed through the process of conceptualizing key contents of each theme.

The results of this study based on aforesaid research issues were as follows:

First, the motivation for the participation of the infant's fathers in parent participation class at daycare centers was the desire to be good fathers through the education provided by participation class or through the participation class. The ideal father figure, which fathers tried to be, was the warmhearted and friendly fathers whom their children could feel comfortable with and who would understand their children and be remembered as good fathers even after their children grew up.

However, fathers with inadequate knowledge of child-rearing felt it is difficult to take care of their children and was found to acquire the child-rearing information and skills by joining a participation class at daycare centers. Meanwhile, some fathers partook in the participation class as decided by their wives. In such a case, fathers were found to join the participation class at daycare centers for fear of potentially estranged relationship with their spouses from the difference of educational viewpoint.

Second, this study examined the meaning of participation class for fathers based on the participation class experience that could be gained by fathers with young children.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articipation class at daycare centers led fathers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the paternal role even for young

children beyond the role of breadwinners for families.

Such a change in awareness led fathers to play their roles as active nurturers, which resulted in the changes of a family member. The resulting increase in the communication with young children deepened the affection towards their children while the growing interest and empathy in their wives' household chores and child-rearing reduced spousal conflict and improved relationship with their wives, thus solidifying close relationship among family members. Fathers with young children increased their understanding of the education courses provided by daycare centers, where their children were taken care of, through the paternal participation class. Furthermore, the professionalism of teachers towards early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strengthened the trust in the daycare centers.

Third, we analyzed the needs of fathers for the efficient operation of the class participated by fathers with young children. The results showed that fathers had the desire to partake in the participation class at the day care centers, which were useful for developing their talents or specialties, and had the preference for physical activity programs suited for the male characteristics of fathers. In addition, fathers with young children wanted diversification of educational programs conducive to participation class using various contents that meet the preference for child-rearing education programs in the form of internet lecture and videos that can be accessed freely without constraint on time and place, going beyond the mode of existing

lectures or seminar-type meetings. Moreover, fathers wanted the space where they could share child-rearing knowledge in the SNS chat room through mobile messenger or small group meeting. Such needs of fathers reflect the changing attitude of fathers who became more active in child-rearing, unlike in the past. In that way, fathers have an increased awareness towards the care of children and strongly demand the realistic support, such as corporate education, flexible working system, mandatory childbirth leave of fathers, and children leave system, etc., to promote a shift in the awareness towards the role of fathers in the companies and society.

부록 1. 연구 참여 동의서

연구 참여 동의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신여자 대학교 생애복지대학원에서 보육학을 전공하고 있는 오영희입니다.

본 연구는 영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어린이집 부모수업 경험에 관한 연구입니다. 영아기 아버지들의 부모참여 경험을 토대로 부모참여의 실태와 자녀양육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제공하도록 지원하며 아버지들의 부모참여를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기초자료를 제공 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와 2~3회의 개별 면담을 실시하게 되며, 면담내용은 모두 녹음됩니다. 연구 참여자와 관련되어 본 연구에서 얻어진 모든 자료는 익명으로 기록될 것이며, 녹음내용을 비롯한 모든 자료는 연구 목적이 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 드립니다. 또한 연구 시작 전, 혹은 시작 후에도 본인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중단 할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본 연구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 10 월
성신여자대학교 생애복지대학원 보육학과

지도교수 : 황 인 애
연구자 : 오 영 희

본인은 연구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연구 참여에 동의합니다.

2018년 10 월

연구참여자 : (인)